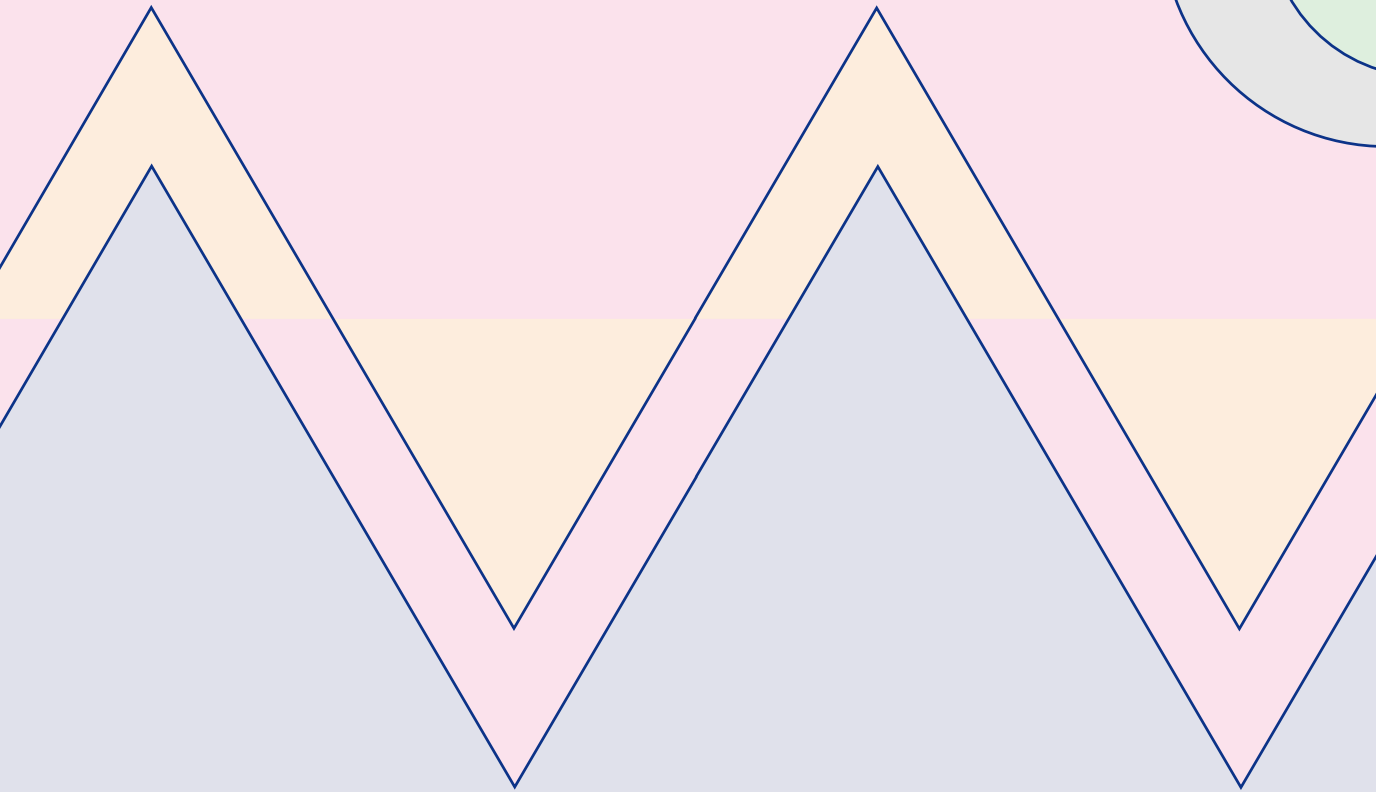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시각언어 프로그램 개발연구

눈 손 끝에서 끝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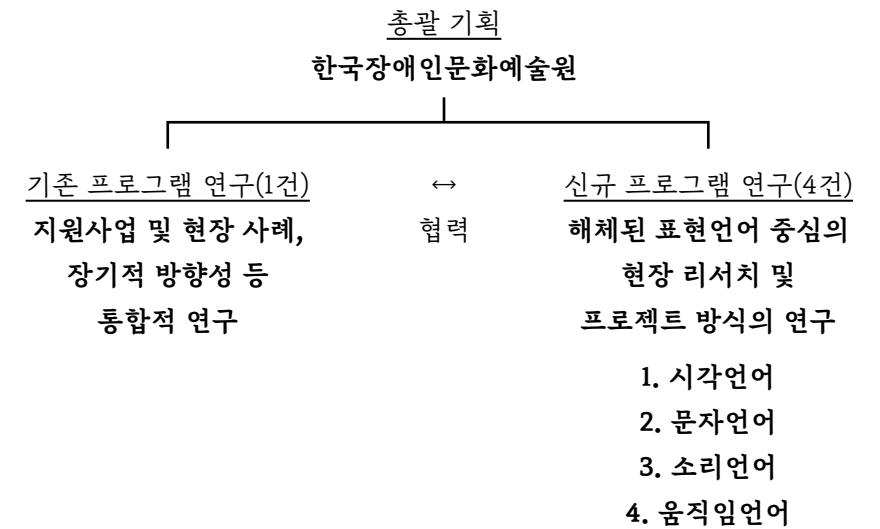


눈 끝에서, 손 끝까지,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주관한 <발달장애인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이하 <특성화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특성화 연구>는 크게 2가지의 연구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사업 및 현장 사례와 장기적 방향성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기존 프로그램 연구’이고 나머지 하나는 해체된 표현언어를 중심으로 현장 리서치 및 프로젝트를 진행한 ‘신규 프로그램 연구’이다. ‘신규 프로그램 연구’는 비장애인에게 익숙한 장르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의 표현 행위 자체로 드러나는 해체된 표현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4명의 예술가(팀)이 각각 4개의 표현 언어(시각, 문자, 소리, 움직임)를 담당하여 더욱 현장 중심으로 실험 및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 보고서는 그중 하나의 표현언어에 대한 결과를 담은 것으로, 본 연구의 전반적인 기획 배경 및 맥락은 <발달장애인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_기존 프로그램 연구>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목차

I. 연구 방법과 대상 11

- 1. 프로그램이 없는 교육방법으로서 연구
- 2. 기존 사례로서 당사자의 활동 기록
- 3. 교육활동 개설 운영을 통한 사례연구

II. 교육활동의 구성요소 14

- 1. 활동의 구성
- 2. 매체와 행위
- 3. 감각적 스펙트럼
- 4. 행위의 힘과 지향
- 5. 감정과 정서
- 6. 교사와 교육활동

III 교육활동의 사례 23

- 1. 기존의 사례
 - 유정연 / 16세
 - 전한성 / 24세
 - 최종섭 / 24세
 - 한수이 / 47세
 - 홍진명 / 29세
 - 김진우 / 24세
- 2. 장항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합학급 사례 45
 - 김철수(가명) / 6세
 - 이영수(가명) / 5세
 - 최은비(가명) / 5세
 - 박은혜(가명) / 5세
- 3. 서천여자중학교 특수학급 사례 59
 - 학생과의 만남 및 매체의 선정
 - 첫 번째 매체 | 점토, 공예용 철사, 스티로폼 판, 색 레이프, 색 유성펜
 - 두 번째 매체 | 신문지, 검은색 도화지, 풀, 가위, 셀로판테이프
 - 세 번째 매체 | 신문지, 검은색 도화지, 풀, 가위, 셀로판테이프 + 솜, 습자지, 포장지, 면 끈, 스티커
 - 네 번째 매체 | 신문지, 검은색 도화지, 풀, 가위, 색종이 레이프, 스티커, 플레이콘, 우드락 판
- 4. 사례를 마치며 78



I. 연구 방법과 대상

- 1. 프로그램이 없는 교육방법으로서 연구
- 2. 기존 사례로서 당사자의 활동 기록
- 3. 교육활동 개설 운영을 통한 사례연구

1. 프로그램이 없는 교육방법으로서 연구

본 연구는 애초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손쉬운 프로그램, 그리고 그에 대한 길잡이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이다. 이제 막 교육활동에 나선 사람이나 혹은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더욱 절실하게 느껴질 것이다.

책임연구원인 나의 경우도 교육활동 초기에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곤 했다. 어떻게 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사자를 만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활동을 전개하다 보면 예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다. 프로그램은 당사자의 욕구, 혹은 할 수 있는 것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곤 했다. 때때로 당사자를 끌어당겨 프로그램에 맞추려 하기도 했지만, 거기에는 어떤 무리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당사자 쪽엔 내가 파악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다. 필요한 것은 당사자를 좀더 관찰하고 지켜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나의 교육활동은 당사자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교육활동은 그것을 발견하고 집중하는 과정이 되어 갔다.

그러니까 교육활동이란 그 과정을 미리 정해놓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일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상황과 당사자의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다. 교사가 의도한 바와 전혀 다른 효과가 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프로그램을 정해진 바대로 진행할 수 없다. 자기표현이 중심이 되는 예술 활동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활동의 중심에는 당사자의 표현이 있으며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본 연구는 프로그램이 없는 가운데 당사자가 스스로 활동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것에 개입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사후 기록이 교육활동의 일반적인 길잡이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본 사례는 단지 기록을 넘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근거와 조건에 대한 참조점이 될 것이다. 무엇이 교육 당사자의 행동을 촉발하고 지속하게 하는지, 어떻게 자기 표현활동이 형성되고 수행되는지, 만족은 어디서 오는지, 교사는 또한 무엇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가능한 다양한 사례를 담고자 했으며 유아기부터 성인까지 13명의 발달장애인 사례와 활동과정을 담고 있다.

2. 기존 사례로서 당사자의 활동 기록

그동안 지역에서 꾸준히 미술활동을 하고 있던 발달장애 청소년, 성인 6명을 조사하여 기록하고 있다. 길게는 11년 짧게는 2년에 걸쳐 활동을 지속한 분들이다. 그것은 지역의 장애인 기관을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일관된 활동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본 책임연구원이 그 활동에 관여하였고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서 관찰할 수 있었던 것도 사례 기록의 기반이 되었다. 본 기록은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가진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전개되어온 활동양상에 초점을 둘 것이다. 장기간의 활동인 만큼 당사자의 특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주어진 매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스스로 표현을 일구어왔는지, 그에 프로그램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활동 개설 운영을 통한 사례연구

본 연구 일정에 맞춰 새로 개설하여 운영한 교육활동 사례 연구이다. 장항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합학급과 서천여자중학교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주당 1시간, 총 15주, 15시간 운영하였다. 연구원이 주강사, 책임연구원이 보조강사가 되어 팀티칭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하였다. 주강사가 활동을 총괄하고 보조강사는 개별 활동을 지원하거나 관찰하는 역할을 맡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활동에 있어서 사전에 마련된 교육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미리 정한 것이 없이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교육 당사자들의 몫으로 남겨 두었다. 다만 강사는 어떤 매체를 제공할지만 결정하며, 준비된 매체를 교실에 풀어놓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강사가 종종 활동에 개입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활동을 관찰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그렇게 활동이 끝나면 주강사와 보조강사는 함께 관찰한 바를 평가하며 그다음에는 어떤 매체를 준비할지 협의하였다.

여기서 강사 간의 협력은 활동의 밀도를 높이는 데 큰 힘이 되었다. 한 사람이 상황을 총괄하는 동안 한 사람은 개별화하여 집중할 수도 있었고, 사후 토론을 통해 활동의 방향에 대해 깊이 숙고할 수 있었다. 특히 13명의 아동과 함께 한 유치원에서는 강사 간의 긴밀한 협조가 없었다면 활동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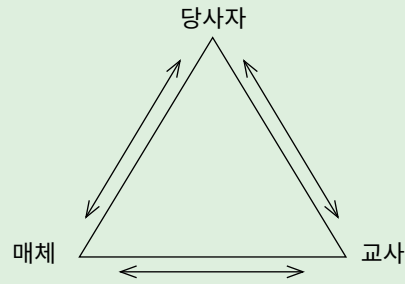
II. 교육활동의 구성요소

교육활동이 시작되는 출발선에서 프로그램이 없다고 할 때, 그러면 교사는 무엇을 근거로 활동을 시작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교육활동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는 것은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1. 활동의 구성
2. 매체와 행위
3. 감각적 스펙트럼
4. 행위의 힘과 지향
5. 감정과 정서
6. 교사와 교육활동

1.

활동의 구성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본 요소는 당사자, 교사, 그리고 “매체(재료)”다. 흔히 매체 대신 “프로그램”을 떠올리지만, 그것은 교정되어야만 한다. 프로그램은 활동을 지시하는 것으로, 교육 당사자가 활동을 결정하는 주체가 된다면 그 의미가 상실된다. 바로 그 자리에 매체가 자리한다. 매체는 시각예술 활동의 본질을 구성한다. 교육 당사자는 선택한, 혹은 주어진 매체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활동을 시작한다. 매체를 마주하는 순간 그것과 함께 무엇이든 시작한다. 때문에 교사가 당사자의 활동을 컨트롤하고자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보다는 어떤 매체를 준비할지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2.

매체와 행위

당사자의 행동은 매체에 대한 감각적인 반응에서 비롯한다는 점이 본 연구가 강조하는 지점이다. 생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아이도 연필을 쥐면 그어대는데 그것은 매우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이다. 무엇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기도 전에 감각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매체	행위
연필, 펜, 붓	부딪히기, 찌기, 긁기, 흔들기, 문지르기, 칠하기, 그리기 등
점토, 물건	만지기, 나열하기, 두드리기, 부수기, 주무르기, 떼어내기, 붙이기, 만들기 등
물감, 액체	묻히기, 붓기, 흘리기, 뿌리기, 번지기, 칠하기 등
종이, 판재	만지기, 문지르기, 찢기, 자르기, 구기기, 접기, 만들기 등

매체와 관련지어 행위를 표와 같이 예시할 수 있다. 이런 매체가 주어지면 대체로 이런 행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것은 관찰된 것이기도 하고 예상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미술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그리기, 만들기’ 정도의 행위를 지칭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것은 사람이 매체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극히 일부의 행동에 불과하다. 실제로 발달장애인 활동의 현장에서 우리는 매우 폭넓은 행위의 스펙트럼을 확인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비정상적으로 보고 억제하는 방식으로 지도를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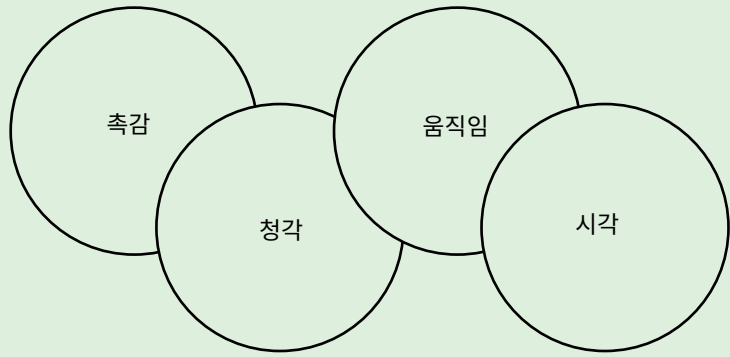
* 발달장애인들에게서는 비장애인들이 가진 개념 세계에 얽매이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그것은 지적인 장애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때문에 더욱더 원초적인 행위의 세계와 함께하며 그것을 즐기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 점은 더욱 적극적으로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장애로 인해서 더욱더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다. 비장애인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점토로 무엇을 만들 때 점토를 손으로 조물거리는 것은 단지 만들기를 위한 행동만이 아니라 조물거릴 때 오는 촉감의 즐거움 때문이라는 것을 관찰해보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서 ‘만들기’라는 행위만 주목하고 ‘조물거리기’를 부수적인 행동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행위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러한가 반문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과연 그것을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데, 다시 반문할 수 있다. ‘과연 그것이 미술이어야만 하는가?’ 본 연구는 이상의 모든 행동을 정상적인 범주로 보면서 그 행위 당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교사는 교육 당사자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프로그램 대신 매체를 선택한다고 여겨야 한다.

3.

감각적 스펙트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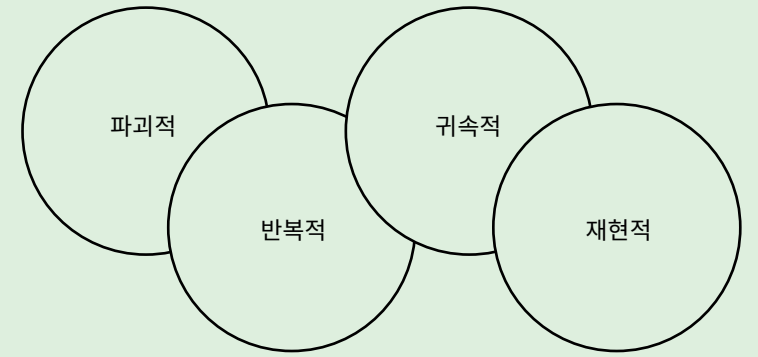
당사자가 매체와 마주하며 하는 행위는 생각보다 폭넓은 감각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어떤 물체를 만지고 조물거릴 때 오는 촉감은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감각이다. 특히 눈과 손의 협응이 잘 안 되는 당사자의 경우 손끝으로 느끼는 촉감은 무엇보다도 확실한 유인력이다. 매체를 긁거나 부딪힐 때 나는 청각적 측면 또한 주요한 감각적 요소가 되며, 몸을 움직일 때 느껴지는 쾌감 또한 작용한다. 대체로 시각이 가장 강력하고 지배적이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은 잘 관찰되지 않는데, 조금만 세심히 보면 그러한 감각적 요소들이 혼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들은 당사자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부차적인 것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아주 주요한 것이 되기도 한다.



물론 시각적 감각은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감각이 압도되어 사라지는 상황은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감각적 요소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활동을 풍요로움을 유지해낼 수 있다.

4. 행위의 힘과 지향

한편으로 행위는 일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의 강도, 혹은 그 힘의 쓸림이 있다. 행위는 지향성을 형성하게 된다. 그것을 분류해본다면 대체로 ‘파괴, 반복, 귀속, 재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중 가장 원초적인 행동은 파괴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행동할 때 어떠한 결과도 목표하지 않으며, 오로지 그 행위 자체에 몰입한다는 측면을 가진다. 예를 들면 ‘종이를 찢는다’고 할 때 그 찢는 것이 또 다른 무엇을 목표로 하지 않고 그냥 찢는 행위로만 끝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찢는 행위로 인해 쾌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런 활동이 아무런 결과를 남기지 않을뿐더러 이전에 있던 어떤 질서마저 무너뜨리고 만다는 점에서 파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될 때는 다른 측면을 가진다. 찢는 행동이 반복되면, 그 행위로 인해 나타나는 정서적인 특성이 그저 찢고 마는 때하고는 다르다. 그저 찢고 말 때는 힘을 폭발시키는 것으로 끝난다면, 찢는 행동을 자근자근 반복하면 그 힘이 정돈되고 질서가 부여되는 특성을 가진다. 그것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행위에 지속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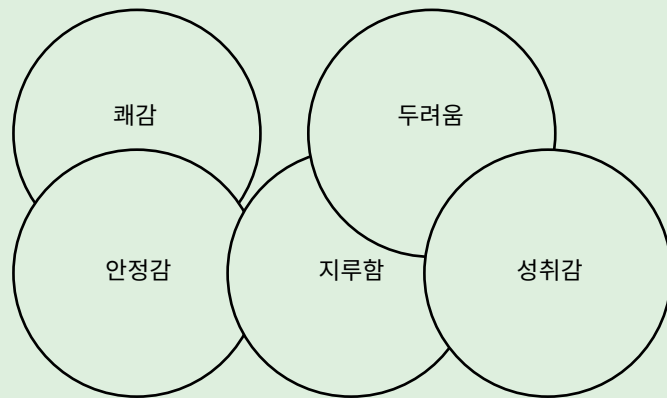
일정하게 행동이 반복되는 것은 행위에 방향성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행위의 결과물로서 일정한 형상을 겨냥할 수 있다. 점토를 손으로 굴리면 둥글게 되며, 종이를 가위로 자르면 네모지게 된다. 붓질을 아래 위로 하면서 수직성으로 수렴될 수 있고, 붓을 굴리면 둥그런 무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면서 표현의 과녁처럼 행위를 귀속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정한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조형적인 특질을 지니게 된다.

반면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재현해내는 행위가 있다. 그것은 사물의 형상이나 개념을 재현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행동이나 과정을 재현할 수도 있다. 가장 시각적인 행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파괴-반복-귀속-재현’의 힘의 방향에서는 점차 더욱 시각적이라는 특성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점점 더 조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게 더 미술적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 방향의 행위를 지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파괴적인 행위의 경우 그것을 무한정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의미한 행위로 치부할 수 없다. 그것은 사실 모든 행위의 원천을 이룬다. 때때로 행위가 반복되면서 표현의 즐거움이 감소할 수 있는데, 파괴적인 행동은 그런 질서를 무너뜨리고 방향을 바꾸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5. 감정과 정서

쾌감은 감각이 움직이는 동인이다. 또한 그것을 일정한 질서에 수렴하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지루함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한편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자기 활동에 대해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겹쳐지면서 그렇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이를 찢으면 안 된다는 규칙이 내면화될 때 찢는 행동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한편으로는 무언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제시됨으로써 그것을 못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긴다. 또한 해냈을 때 성취감이 대응하기도 한다.

활동에서 전통적으로는 대체로 성취감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무언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해내는 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는 자꾸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게 하려 한다. 그렇지만 그것을 끝내 해낼 수 없을 때, 낙담하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교사에게 대신해달라고 하거나, 일정한 매뉴얼을 정해놓고 따라 하게 하는 일이 생긴다. 물론 그 결과 일정한 성취감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활동에는 무엇을 이뤄야 한다는 목표와 상관없이 감각적인 즐거움, 즉 원초적인 '쾌감'이 있다. 타인을 의식하기 전에 스스로 가지는 만족이 있다.



6. 교사와 교육활동

교사는 당사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정서적 반응을 바라보며 그것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교사가 개입한다고 해서 금세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자근자근 다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폭발적인 행동이 강력한 쾌감에 휩싸인 것일 수도 있지만,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다. 교사가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이다. 우연한 상황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기도 한다.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그러저러한 특성을 발견하고 그것과 함께 하는 것이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그런 발견 속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이 있다. 활동 속에서 그저 '물질'에 불과한 매체가 당사자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있을 때 교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III 교육활동의 사례

- 1. 기존의 사례
- 2. 장항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합학급 사례
- 3. 서천여자중학교 특수학급 사례

1. 기존의 사례

본 사례는 충남 서천지역에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일관되게 진행되어온 발달장애인 미술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중간에 주관 기관이 바뀌는 변화가 있었지만, 일관된 흐름 속에 유지되었으며, 참여 당사자 또한 다소 변동이 있긴 했지만 대체로 동일한 집단으로 유지되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장기간 동일 집단으로 유지되어 운영되다보니 참여 당사자 중심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때문에 참여 당사자 각각의 특성에 따라 활동이 형성되고 변화해 온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매체와의 연관성이 흥미롭게 드러나 보인다. 그중 16세에서 47세까지 6명을 선정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그간 함께 해온 활동가의 관찰과 기록된 이미지, 또한 당사자, 부모님, 활동 보조인 등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 유정연 / 16세
- 전한성 / 24세
- 최종섭 / 24세
- 한수이 / 47세
- 홍진명 / 29세
- 김진우 / 24세



유정연 / 16세

2017년부터 지금까지 약 5년간 미술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초기부터 대략 3년 정도의 기간은 활동이 쉽지 않았다. 활동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붓이나 연필을 쥐어줘도 긁는 행동을 몇 번 하다가 금세 내려놓았다. 종종 연필을 돌려 잡고 뒤쪽으로 긁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도구를 사용하는 자신의 손이나 그 흔적에 눈길을 주지 않았고 시선은 늘 허공을 향해 있었다. 손에 점토나 다른 재료를 쥐어줘도 별다른 관심이 없어 그냥 내려놓곤 했다. 미술활동에 참여한다고 말할 수 없었다. 돌발행동도 종종 있었다. 재료를 손으로 밀치거나 다른 친구들의 작업을 잡아당겨 망치는 일이 종종 있었다. 레이블을 별도로 만들어주어야 했다. 말을 사용하지 못하기에 대화로 다가갈 수도 없었고 해결하기 위한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다. 정연 군의 초창기 활동은 다만 사고 없이 자리를 지키는 정도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정도만큼이라도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 여겨졌다. 그렇지만 정연 군은 활동 보조인의 손에 이끌려 꾸준히 출석하였다.

그러던 중 2020년부터 상황에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로 인하여 활동이 위축되었고, 또한 다른 프로그램들이 개설되면서 20여 명이 되던 참여자가 10명 안팎으로 줄어들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교사는 좀 더 차분하게 정연 군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정연 군을 관찰하다 보니 그 활동에 특이성이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기를 하는데 눈은 늘 허공을 향해 있었다. 색연필을 사용하는데 수시로 돌려 거꾸로 잡고 문질렀고 활동 보조인이 바로 잡아주면 다시 돌려 잡곤 했다. 그런데 눈이 그냥 허공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고개를 가웃가웃하는데 귀를 쫓긋하고 있다고 여겨졌다. 그것은 마치 연필을 문지를 때 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색연필의 앞부분보다는 뒤쪽이 문지를 때 소리가 잘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뒤로 돌려 잡는 이유가 그것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교사는 그다음 시간에 색연필과 종이 대신에 볼펜과 캔버스를 준비했다. 캔버스가 북 갈아서 볼펜 끝으로 문지르면 북북 소리가 나기 때문이었다. 예상이 적중했다. 정연 군은 펜을 더 이상 돌려 잡지 않았다. 문지를 때 나는 소리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때 들려오는 소리나 진동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정연 군의 활동은 훨씬 안정되었고 앉아있는 시간도 길어졌다. 돌발행동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미술활동의 멤버로서 자리를 잡아갔다.

정연 군은 다른 행동에서도 손을 사용할 때 거기에 눈을 잘 맞추지 않았다. 손과 눈의 협응 관계가 잘 성립되지 않는 상태라 할 수 있었다. 그것은 정연 군의 특이성이었다. 반면 정연 군이 캔버스에 낸 볼펜 자국은 그 미세한 움직임과 진동을 잘 담아내고 있었다.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귀나 느낌으로 담아내는 또 다른 세계인 셈이었다. 북북 긁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흔들면서 느낌을 탐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연 군 자신에게 있

어서 그것이 미술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저 자신의 행동에서 오는 소리와 진동을 즐기는 일이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정연 군의 작품이 전시되자 주목을 받았다. 관객들이 인상 깊은 작품으로 지목하곤 했다.



볼펜을 미세하게 흔들며 그 느낌에 집중하고 있는 정연 군의 감각적 몰입을 잘 나타나 있다.



2020년 전시된 정연 군의 작품

그런데 그렇게 한해가 지나고 활동이 반복되면서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때때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더 이상 활동을 하려 하지 않는 일이 빈번해졌다. 예전처럼 돌발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활동 시간이 짧아지고 지루해한다는 것이 확인해졌다. 이에 교사는 좀 더 다양한 매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문지르면 소리가 좀 더 잘 날 수 있는 스티로폼이나 비닐류를 제공하기도 하고 두꺼운 종이나 목판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것저것 사용하는 중에 정연 군이 제일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매체는 목판이었다. 그것도 목판에 마카펜을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이었는데, 목판과 마카펜의 조합은 되려 소리가 잘 안 난다는 점이였다. 그것은 촉각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이 설명되었다. 스티로폼의 경우 소리는 잘 나지만 아주 싫어하였다. 그러니까 촉감의 문제라고 더 추측할 수 있었다. 정연 군에게는 목판과 마카펜이 일으키는 마찰에 촉각적인 특이성이 더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후로부터 시간 내내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정연 군에게는 무엇보다도 매체의 촉각적 특성이 그 소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이 정연 군을 몰입하게 해주고 있다.



목판에 마카펜으로 그리고 있는 정연 군의 흔적, 거의 같은 자리에서 짧게 반복하여 긁거나 찍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한성 / 24세

한성 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미술활동에 참여하여 왔다. 약 3년 정도 중단기간을 제외하고 총 8년간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다. 한성 씨는 말을 하지 못하여 언어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때문에 시각매체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성 씨가 가정에서 하고 있는 취미활동이라고 한다면 티브이나 유튜브 시청, 음악듣기 정도이다. 미술활동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의 유일한 자기 표현활동이라 할 수 있다. 미술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한성 씨의 경우 꼭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면 미술활동이 한성 씨가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한다. 한성 씨는 실제로 미술활동을 좋아하며 활동 내내 즐거운 표정이나 태도를 보인다. 한번 활동을 시작하면 교사가 그만하자고 말할 때까지 멈추지 않으며 하는 내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데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일상적으로 그래왔다. 돌발적인 행동이 목격되거나 보고된 적이 없다. 초기에는 오히려 활동을 중단시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점차 그런 모습이 줄어들었으며 최근에는 교사와의 소통이 아주 원활하다. 그만해야 할 때 그만하고 시작해야 할 때는 시작하고, 활동을 진행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없다. 가정생활에서나 다른 상황에서는 때때로 돌발적인 행동이 있다고 하는데, 미술활동 시간 안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초기의 미술활동에서 한성 씨에게 제공된 것은 물감, 붓, 종이, 혹은 캔버스 등 회화적인 매체였다. 그런데 한성 씨는 그것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였고 몰입감이 높았다.

한성 씨는 붓에 물감을 묻혀 팔을 돌려가며 둥글게 문지르는데 이때 그 문지르는 동작에 매우 심취한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흔적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돌려 문지르는 움직임과 손의 감각에 몰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번 시작하면 붓의 털이 다 닳아 없어지는 상황까지 간다. 그래서 1일 1붓이다. 스스로 종이나 캔버스를 바꾸지 않고 계속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구멍이 뚫리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문지른다. 물감이 다 떨어져도 물을 묻혀가며 계속한다. 적당한 순간에 화지를 바꿔주거나 물감을 공급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붓질은 한곳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점점 공간을 넓혀가며 화면 전체로 나아가기도 한다. 이때 붓에 물감과 물을 반복적으로 묻혀가며 문지르는데 그것이 가지는 물성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 색상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 물감을 묻히다 보면 색이 마구 섞이게 되는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활동시간이 끝나 멈추게 하기 전까지 그런 동작을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 아마도 그냥 두면 종일도 하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다. 한성 씨의 이러한 표현 방식은 2011년 시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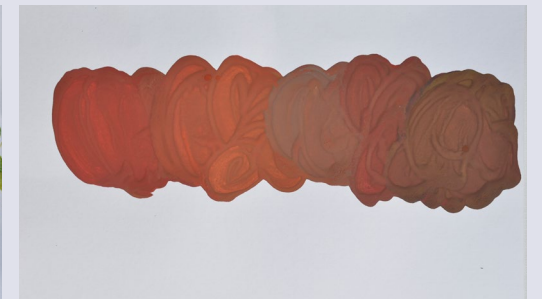
초창기 캔버스 그림이다. 붓을 돌려가며 점점 공간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교사가 적당한 시간에 캔버스를 움직여 주어 여러 곳에 붓 자국이 나도록 했고, 적당한 시간에 활동을 중단시켰다. 교사가 개입하여 특정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도록 했다고 할 수 있다.



종이에 수채물감으로 한 것이다. 종이가 다 녹아 물감과 함께 뭉쳐졌고, 구멍이 났다. 아마도 이것을 계속 했다면 종이는 완전히 닳아 없어졌을 것이다. 교사가 이 시점에서 활동을 중단시켜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종이에 수채물감을 사용한 것인데, 색을 섞어가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동글러 간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교사는 이 시점에서 활동을 중단시켰을 것이다. 그냥 두었다면 그림 3과 같이 종이가 녹아 날때 까지 활동이 이어졌을 것이다.



10cm×10cm사이즈 세라믹에 그린 것으로 작은 사이즈의 크기에 맞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맨 오른쪽의 것은 붓의 털이 닳아버리고 붓의 쇠붙이 부분으로 세라믹판이 긁혀진 상태를 보여준다.

한성 씨의 작업은 화면 크기에 따라 그 둥글리는 동작도 커지거나 작아지기도 하고, 큰 화면에 작게 둥글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점차 전체 화면으로 옮겨가며 화면을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한성 씨는 오랫동안 대체로 물감과 붓을 사용하여왔는데 그 물성이 가지는 만족감이 아주 높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최근 좀 더 다양하게 매체가 제공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변주를 보여주었다. 기본적인 표현 방식은 같아도 매체의 특성에 따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종지와 매직펜이 제공된 적이 있는데, 이때는 종지에 작고 둥글둥글하게 모양을 만들어 채워나갔고 거기에 다시 채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종이에 매직펜으로 표현한 그림

둥글둥글하게 선을 그린 후 그 위에 다시 채색을 하고 있다.

이젤을 사용하여 커다란 캔버스를 세워놓고 작업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한성 씨의 붓질은 둥글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아래 위로 흔들며 긁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서 있는 자세에서는 그런 동작이 훨씬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던 셈이다. 또한, 세워진 캔버스가 물감이 흘러내리는 효과가 있어서인지 물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만큼 더 흘러내리는 효과가 났다. 한성 씨가 그 효과를 즐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7*91cm사이즈 캔버스, 세워진 캔버스가 가지는 표현효과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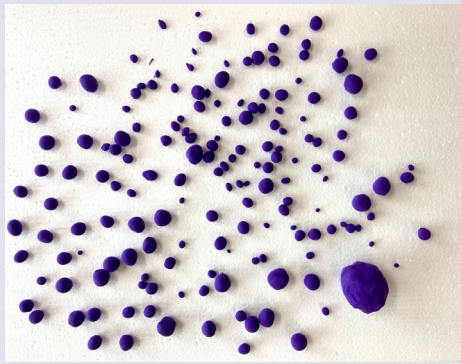


물감이 흘러내리는 효과가 나자 교사가 중간중간에 캔버스의 방향을 바꿔주어 이러한 효과가 났다. 한성 씨와 교사가 함께 작업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점토를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그것들을 손으로 적당한 양을 둥글려 둥글둥글한 모양을 만들었고 끝없이 그것을 양산하였다. 붓을 굴리는 것과 흡사한 행동이었다. 그런데 제공된 점토의 양이 한정되자 더욱더 작게 쪼개며 둥글둥글한 조그만 덩어리를 무수히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때로는 둥글게 만든 조각들을 다시 한곳에 뭉쳐내기도 하는데 그것 또한 붓 자국이 한 곳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겹쳐지고 뭉개지는 표현의 형태라고 아주 닮아있다고 할 수 있다.



동글동글하게 뭉쳐진 점토



동글동글한 모양이 한없이 잘게 쪼개지고 있다



잘게 쪼개 뭉친 후 다시 한곳에 모아 뭉치는 모습



표구되어 전시장에 나온 한성 씨의 점토 덩어리들

이런 한성 씨의 활동은 교사의 어떠한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의 욕구에 따라 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매우 자발적이며 스스로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0년을 넘는 세월을 일관되게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지루함을 표현하거나 활동을 스스로 중단했던 적이 보고된 바가 없다. 그런데 그 행동에 알맞은 매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스로 매체를 요구하거나 선택하지는 못하지만 주어진 매체의 특성에 따라 알맞게 그 행동을 적응시키면서 자신의 즐거움을 수행해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오랫동안 진행해온 프로그램 안에서 한성 씨 스스로 적응하며 즐거움을 일궈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또한 그것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최종섭 / 24세

종섭 씨는 2015년부터 미술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중간에 1년 정도 쉬었으니 6년 정도 미술활동을 해온 셈이다. 복지관에서 미술활동을 하게 되면서 집에서 차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와야 하지만 거의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 종섭 씨는 적극적으로 자기주도적인 참여자이다. 그 주제나 매체에 있어 그때그때 표현의 욕구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하고 나타낸다.

종섭 씨는 무엇보다도 아주 자유롭고 과감하며 자기 주관성이 뚜렷하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 적이 없이 스스로 자기표현에 몰입한다. 재료만 있으면 교사의 역할이 따로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다. 재료가 있으면 재료에 따라 알맞게 주제를 선택하여 작업한다. 작업 준비부터 마무리, 그리고 뒷정리까지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낸다.



천에 염색 물감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이다. 2015년에 그린 것으로 확인되는데, 로봇과 관련된 어떤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색을 다양하게 쓰며 그 색상을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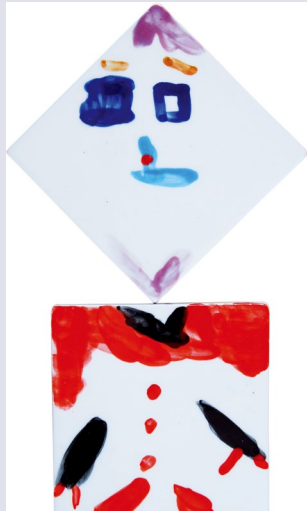


2016년 캔버스에 아크릴로 그린 것으로 산, 해, 달, 등을 포함한 풍경을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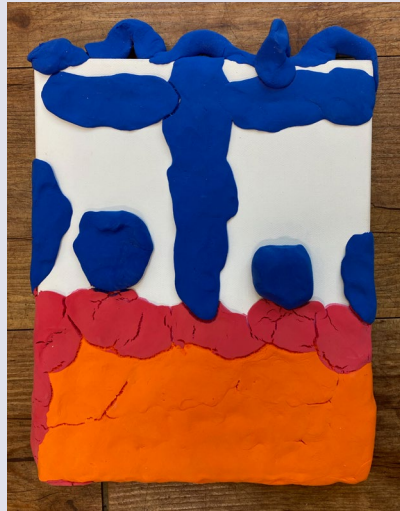


2016년 전시회에 걸렸던 종섭 씨의 그림들이다. 꽤 다양한 주제들을 그려내고 있다. 왼쪽 위의 그림은 용을 표현한 것인데 머리 쪽, 몸, 꼬리 부분이 따로따로 그려져 나열되어 있다. 캔버스 공간에 맞춰 분리한 것으로 보인다. 왼쪽 아래 풍경의 경우 태양, 집, 산, 땅, 바다 등이 그려져 있는데 이들은 공간에 쪼개져 배치되어 있는 듯 보인다. 오른쪽 위의 사람 모양은 얼굴의 외곽선이 없이 그려져 있다. 오른쪽 아래의 그림들은 추상적인 모양을 이루고 있다.

색감이 풍부하고 그것을 즐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색을 세심하게 선택하여 결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양한 대상을 그려내며 풍경이나 어떤 상황을 표현하기도 한다. 표현하는 데 있어 화면의 규격이나 상태에 맞춰 대상을 본래의 모습과 상관없이 임의로 분리하여 배치하기도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고 거리낌이 없다. 그러니까 주제뿐 아니라 매체의 조건과 특성 또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종 화면의 틀을 외곽선으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대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종섭 씨는 자의적으로 나름의 표현방식을 만들어가며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종 추상적인 형태를 즐기기도 하는데, 추상적인 모양이 때로는 실제 어떤 대상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대상을 표현하다가 추상적인 모양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자신의 욕구에만 집중하기에 가능하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실제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것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에만 열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0*10cm 사각 세라믹 판 2개를 이용하여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캔버스에 점토를 붙여 표현한 작품으로 정해진 주제가 없이 즉흥적으로 점토를 붙여가며 표현한 것이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작은 화면에서는 특정한 주제를 나타내거나 모양을 묘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커다란 화면이 주어졌을 때는 채색 활동에 더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별한 주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결국은 화면을 색으로 가득 채우는데 몰두 한다. 특히 이런 때는 캔버스의 앞면뿐 아니라 뒷면까지 뽀뽀하게 채색을 해야 만족한다는 것이다. 정말 세심히 빈 곳 없이 색을 칠하기 위해 애를 쓰며 완성했을 때 그만큼 더 성취감을 느낀다.



117*91cm사이즈 캔버스, 추상적인 이미지로 화면을 뽀뽀 채색하고 있다. 그림 위에는 '최종섭 완성'이라고 쓰여있다. 그림을 끝냈다는 만족감이 드러나 보인다.



커다란 캔버스였지만 뒷면까지 채색을 하고서야 그림을 끝냈다.

한수이 / 47세

종섭 씨의 어머니이다. 종섭 씨가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이유 등으로 한동안 미술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종섭 씨의 어머니와 누나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머니도 종섭 씨 못지않게 미술활동을 즐겨워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복지관이 멀기 때문에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면서 와야 하지만 셋이 함께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종섭 씨 뿐 아니라 종섭 씨의 가족을 위해 훌륭한 미술활동이 되었다.

수이 씨는 어머니답게 따뜻하고 아기자기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작품은 그러한 주제들로 가득하다. 그림을 그리면 자기 가족을 표현하거나 마을, 혹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 대개 처음부터 주제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다가 이야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그림 안에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겹치기도 하고 이야기와 상관없는 요소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그림이 그려진다.



종이에 수채물감으로 그려졌다. 그림의 주제는 마을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등장인물은 딸과 아들이다.



큰 나무가 있고 하늘엔 해, 나무 아래엔 의자와 집이 있는 풍경이다. 캔버스에 수채물감으로 그렸는데 독특한 표현효과가 났다. 있는 재료를 선택하다보니 우연히 생긴 효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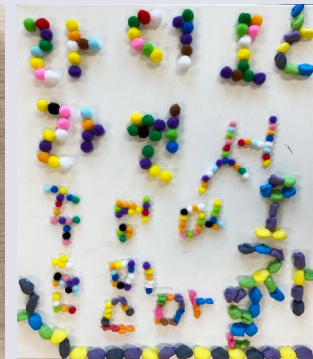


117*91cm 큰 사이즈 큰 캔버스인데, 특별한 주제가 없이 이런 저런 도상들로 그림을 채우고 있다. 아마도 큰 캔버스를 다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수이 씨에게는 큰 그림보다는 작은 그림이 더 잘 맞는 것 같다.

수이 씨는 특히 무언가 붙여 표현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특히 예쁜 색이나 반짝이는 효과가 있는 재료를 더욱 좋아한다. 대부분 평면에 꾸며 붙이듯이 표현을 한다. 표현은 때때로 추상적인 무늬를 담기도 하는데 주로 글씨를 쓰거나 사람 얼굴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냥 화면을 가득 채워 표현하기도 한다.



자신의 가족이라고 했다. 위의 왼쪽이 자신, 오른쪽이 남편, 아래 왼쪽이 아들, 오른쪽이 딸이다.



글씨로 이루어졌다. 라디오, 라면, 서주영, 스마일, 등의 글씨들이 보인다. 특별히 주제가 있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글씨를 만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국수, 구”라는 글씨가 보이는데 그림 같은 것도 있다.



반짝이는 재료로 추상적인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다.

워낙 즐겁게 활동하여 이런 미술활동을 이전에 해본 적이 있느냐 물으니, 학교 다닐 때 해보고는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는 해본 적이 없는 셈이었다. 평소에 집에서 이런 활동을 해보고 싶지 않느냐 여쭙었더니 “하고 싶다”고 했다. 그렇지만 “재료가 없어서 못 한다”고 했다. 그러면 재료가 있다면 집에서 하시겠느냐고 여쭙니 “그렇다”고 했다. 가정의 환경을 보았을 때 그것이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으나 프로그램 시간 이외에도 평소에 이런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수이 씨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재료와 알맞은 공간이었다. 교사가 하는 일이란 단지 재료를 제공하고 공간을 조성해주는 일일 뿐 활동은 모두 수이 씨가 알아서 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수이 씨에게 필요한 것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었던 셈이다. 그것이 갖춰져 있지 않아 학교를 졸업하고는 한 번도 이런 활동을 해보지 못한 셈이 되었다. 종섭 씨가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모색하다가 종섭 씨의 어머니인 수이 씨가 미술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종섭 씨 못지않게 수이 씨에게 꼭 필요한 활동이었던 것이다. 이전에는 아무도 미처 몰랐다. 그것이 발달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홍진명 / 29세

진명 씨는 2019년부터 미술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니까 3년 정도 참여하였다. 물론 이전에 다른 곳에서 미술활동을 경험해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지속해서 활동을 한 것은 여기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부터라고 한다. 집에 재료를 마련해두고 있기는 하지만 따로 활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한다. 어머니에 따르면 작업 상황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하지는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나 미술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진명 씨는 미술활동을 좋아한다. 어머니에 따르면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점점 몰입감이 높아졌다고 했다. 작업을 할 때 흥미 있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내는 경향이 있는데, 점점 활동 시간이 길어진다고 했다. 특히 여기 프로그램에서 붓과 물감을 사용하게 된 것은 더욱 흥미로운 일인데 초기에는 사용이 서툴러서 어려웠지만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전의 다른 미술활동에서는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재료였다고 했다. 같은 재료를 지속해서 사용하다 보니 그것을 중심으로 활동이 성숙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고 했다. 또한 프로그램 시간이 휴일인 토요일이어서 유익한 일이라고 했다. 딱히 할 일이 없는 휴일에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진명 씨가 말이 서툴러 언어로 대화를 나누기 쉽지 않지만, 미술활동이 어떠냐고 물으니 “좋아요”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은지 묻자 “예”라고 한다.

진명 씨는 그리기에서 주로 사람을 그리고 자동차, 혹은 꽃과 같은 몇몇 도상을 그릴 수 있다. 사람은 줄라맨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림문자 같은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린 곳에 또다시 다른 그림을 겹쳐 그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림이 훼손되어 보이는 양상이 된다. 그러니까 그려진 대상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그리는 행위와 그 상황에 더 즐거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새로운 말이 계속 쌓이듯 그림도 그렇게 이야기처럼 쌓여가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었다.



진명 씨의 사람 그림이다. 그릴 때 물어보면 그때 그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림을 그리고 장식을 하게 되었는데, 장식이 그림을 점점 가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위에 새로운 그림이 계속 첨가되면서 본래 그린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117*91cm로 큰 사이즈 캔버스에 그린 것이다. 사람의 모습을 그렸는데 처음에는 색 점을 찍어 장식을 하다가 붓으로 밀어 면을 색으로 채우고 있다. 처음 그린 그림의 의식하고는 있지만 색을 칠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이 그림에서는 애초에 그린 그림이 덧칠해진 붓 자국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처음에는 점으로 찍는 붓 자국을 냈지만, 붓을 그려 채색을 하고 있다. 큰 캔버스인 만큼 이젤에 세워 그렸는데 서있는 자세에 알맞은 붓 자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모습은 커다란 화면이 주어졌을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리거나 한다. 그런데 다시 그 위에 붓터치를 찍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점점 그랬던 그림을 덮어 가리게 된다. 이때 붓터치는 점점 주어진 화면을 가득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처음에는 붓터치가 점을 이루다가 어느덧 선이 되고 점점 공간을 메꾸는 붓질로 바뀌어 간다. 무엇을 붙여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더라도 붙이는 행동에 몰입하는 순간 이전의 의도를 잊어버리고 붙이는 행동의 반복성이 이끌리며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때까지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몰입감이 미술활동에서 가지는 진명 씨의 즐거움인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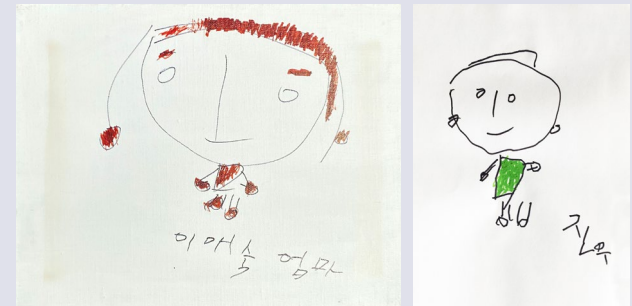


애초에 판자에 그림을 그렸지만 플레이콘을 붙여나가기 시작하자 그림을 완전히 뒤덮었고 플레이콘으로 가득 찼으며 이에 큰 만족감을 느꼈다.

김진우 / 24세

2011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미술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1년째 중단없이 미술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자이다. 그렇지만 진우 씨가 미술활동 그 자체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집중시간이 짧고 활동시간에 자리를 이탈하여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다. 물론 때때로 꽤 긴 시간을 작업에 몰입하기도 하는데, 활동 시간 내내 작업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미술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은 강사 선생님에 대한 관심, 혹은 사람들과 만나 어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 자체를 즐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쉬는 토요일 이러한 활동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즐거운 일인 것 같다. 초창기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 왔으며 최근까지도 그러하다.

진우 씨가 좋아하고 스스로 잘 그린다고 여기는 것은 사람이다. 2011년 시기부터 지금까지 줄곧 사람의 모양이 가장 많이 표현한 주제였다. 자동차, 기차, 집 등을 때때로 그리기는 하지만, 네모를 그린 후 차가 되거나 집이 되거나 하는 것이다. 꽃을 몇 번 시도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한지 그러다 말았다. 진우 씨가 사람을 그리는 것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사람 모양을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써넣으면 그 사람이 된다. 이때 이름을 써넣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 그림을 그린 후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하고자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방법인 것이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줄줄이 써나간다.



엄마를 그렸다

진우 자신을 그렸다

이렇게 주제는 고정되어 있지만, 매체에 따라 그 표현의 느낌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 물론 진우 씨가 그것을 스스로 즐기고 있는지는 판단할 수는 없다. 진우 씨가 특정한 매체를 스스로 선택하거나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때로 어떤 매체에 흥미를 보이기도 하지만 그때뿐이다. 그럼에도 어떤 매체가 주어지면 그에 대해 특별한 선호가 없어도 별다른 저항도 없이 사용한다. 그런데 매체가 달라지는 만큼 보는 사람에게는 다른 느낌과 효과를 주는 측면이 있다. 오랜 세월 다양한 재료로 그려온 진우 씨의 사람 모양은 그만큼 매력이 있다.

사람을 그리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진우 씨의 사람 그림은 대략 6~7세 시기부터 형성되어온 것으로 오랜 세월 그리면서 일종의 상형 문자처럼 고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린다기보다는 쓴다고 하는 것이 더 알맞은 표현일 것이다. 순식간에 글씨를 쓰듯이 그리니까 말이다. 때문에 그리기를 하는 시간이 매우 짧다. 오랜 시간 그리기에 몰입할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두 장 그린다면 불과 2~3분이면 끝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작하면 대어섯 장, 열댓 장 까지도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고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다.

좀 진득하게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은 여백을 꾸민다는가 하는 데서 일어난다. 그것은 대체로 교사가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는 데서 출발한다. 교사가 그림이 꾸며지면 더 멋질 것이라고 말을 하면 진우 씨는 교사의 마음에 들기 위해 사람 그림 주변을 꾸며주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그렇게 시작되어 꾸미기를 하는 동안 진우 씨는 매체를 탐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펜을 사용할 때는 펜으로 점을 찍거나 선을 긋기도 하고, 물감을 사용할 때는 면을 채워 바르기도 하고, 플레이콘이나 장식적인 재료를 붙이거나 하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는 사람을 그릴 때와는 다르게 그 행위 자체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붙일 때는 붙이기, 붓질할 때는 붓질 자체에 몰입한다.

큰 캔버스가 주어졌을 때, 채색, 혹은 붓질의 즐거움을 탐닉하는 모습이 더욱 뚜렷해진다. 여백의 크기가 그런 행동을 독려해내는 것 같다. 때때로 많은 사람이나 글씨로 화면을 채우기도 하지만, 색을 칠하여 여백을 처리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인다. 물론 진우 씨는 색칠하는 일에 몰두를 한다고 해도 애초에 나타내고자 했던 주제를 침범하여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대상과 특별히 관련 없이 채색을 했더라도 말이다.



세라믹에 그린 엄마



두방지에 모필과 먹을 사용해서 그린 강사 선생님



두방지에 싸인펜으로 그린 강사 선생님



캔버스에 아크릴물감으로 그린 강사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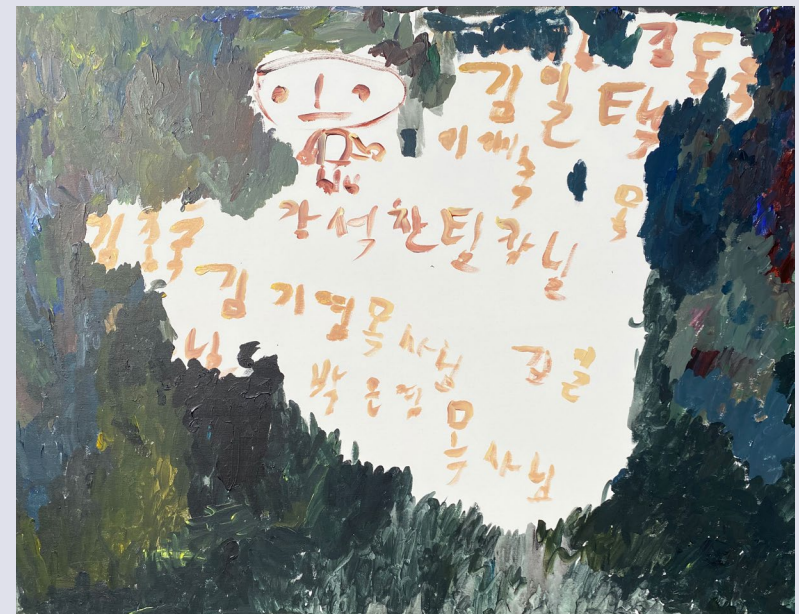
종이에 펜과 먹으로 전도사님을 그렸다



스티로폼 볼에 그린 사람



캔버스에 펜으로 그리고 플레이콘으로 장식한 복지관 담당 팀장님



117*91cm 사이즈 큰 캔버스에 그렸다. 사람을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공간을 채워나가다가, 색을 칠하기 시작했는데, 꼼꼼한 붓질로 여백을 뿑뿑이 채색하고 있다. 이때 진우 씨는 상당한 몰입감을 가지고 오랜 시간 활동을 하였다.

2. 장항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통합학급 사례

장항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합학급 활동은 본 연구의 일환으로 개설되어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주당 1시간 총 15주 동안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책임연구원과 연구원 2인이 강사로 활동하며 관찰해낸 기록이다. 학교 측에서는 활동 보조교사를 포함하여 4인이 함께 지도에 참여하였다. 학급은 비장애 아동과 장애아동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었는데 3세~6세까지의 아동 13명 중 4명이 발달장애 아동이었다. 발달장애 아동에게는 활동 보조교사가 거의 1대1 배치되어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육계획이나 프로그램을 갖지 않았고 매체를 구성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활동을 안내했다. 주어진 매체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는 아동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맡겨졌다. 강사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아동들의 상태와 조건에 대해 관찰하여 판단하고 알맞은 매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아동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자신의 선호에 따라 매체를 활용하여 활동을 전개하였다. 비장애 아동들은 대체로 특별한 도움 없이 스스로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강사의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했다. 이에 주강사와 보조강사는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면서 필요에 따라 특정 아동에게 집중하면서 활동을 이끌었다. 수업이 끝난 후 강사가 관찰한 소견에 대해 함께 토론하면서 아동의 특성에 대해 진단을 나누는 것은 이후 활동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다.

김철수(가명) / 6세

이영수(가명) / 5세

최은비(가명) / 5세

박은혜(가명) / 5세

김철수(가명) / 6세

철수 군은 초기에 거의 활동이 불가능한 모습이였다. 주의가 한곳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이리저리 쏘리는 과잉행동이 있고 무엇보다도 물렁하거나 씹을 수 있는 재료는 먹어버리는 행동을 했다. 그래서 활동 보조교사는 철수 군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급급해 보였다. 때때로 돌발행동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는 점점 감정이 고양되며 소리를 지르며 폭발하게 되고 손에 잡히는 물건을 사정없이 집어 던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교사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여 방해받겠다고 느껴질 때 그래보였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스스로 그러하기도 했다. 일단 돌발행동이 시작되면 진정시키는 것은 어려웠고 활동 보조교사가 다른 교실로 데리고 감으로써 활동이 종료되었다. 매 활동 거의 돌발행동으로 마무리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런 기미가 보이면 활동 보조교사가 아예 미리 철수 군을 데리고 나가곤 했다. 때문에 활동 시간이 매우 짧았고 관찰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우리는 활동 보조교사에게 일단 철수 군이 가급적 교실을 옮기지 않고 그냥 머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권했다. 그렇게 하여 철수 군의 행동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기로 했다. 주강사가 전체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이에 보조강사는 철수 군에게 집중했다. 철수 군은 주어진 재료를 매우 공격적으로 다뤘다. 재료를 한꺼번에 움켜지고 부수거나 으깨거나 했다.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수고, 찢고, 쏟고, 때로는 다른 친구들의 것마저 빼앗고... 그러다가 돌발행동으로 넘어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자신이 흠은 재료들을 모아 그릇에 담았다가 쏟는 행동을 반복하기도 하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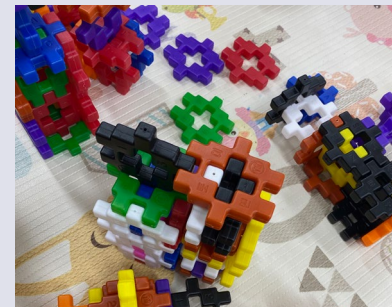
점토를 테이블에 뭉개 바르고 문지르고 있다.



스티로폼 판재를 부수고 재료들을 흠으며 놓고 있다. 때때로 그릇에 담았다가 쏟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어느 날은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블록을 한두 개 꺼내어 조립하는 행동을 보이는 듯하더니, 갑자기 블록 바구니를 엮어 바닥에 쏟고는 흠고 소리를 지르며 감정이 폭발하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진정되기는 했지만 블록을 바구니에 다시 담은 듯하다가 엮고는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때 강사는 철수 군의 표정을 살폈는데 눈빛이 흔들리며 당황스럽고 감당이 안 되는 듯이 보였다. 이에 철수 군에게 블록을 조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나 대량으로 쌓여있는 재료의 상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게 되었다. 분명 처음 행동에서는 조립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지속되지 못하고 과잉행동으로 흘러가버린 것이었다.

이에 강사는 블록 바구니를 치우고 블록 한 개씩만 철수 군에게 건네주어 보았다. 그랬더니 철수 군이 그것을 받아 조립하기 시작하였다. 놀랍게도 아주 빠르게 조립하는 행동을 했다. 강사는 그 행동의 템포에 맞춰 규칙적으로 블록을 건네주기 시작하였다. 그랬더니 조립하는 행동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반복되기 시작하였다. 정말 놀랍게도 집중적으로 조립을 시작했다. 철수 군은 조립과정에서 블록을 관찰하거나 생각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주는 대로 반사적으로 조립을 해나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확하게 규칙을 가지고 조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유치원 담당 교사에 의하면 블록은 최근에 구입한 것으로 철수 군이 이전에 사용해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철수 군이 흠어버린 블록이다.



철수 군이 블록 조립에 몰입하고 있으며 정확한 규칙성을 가진 방식으로 성공적인 블록 조립을 하고 있다.

이로써 강사는 철수 군의 돌발행동이 가진 원인을 발견한 느낌이였다. 재료가 무더기로 한꺼번에 주어져 있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생각해보면 블록을 조립하는 일에는 두 가지 다른 행동이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①알맞은 블록을 선택하는 일’과 그것을 ‘②조립하는 일’이다. 그런데 무더기로 있는 블록에서 알맞은 것을 선택할 때 철수 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철수 군에게 조립하는 일은 아주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을 가진 반면, 무더기로 있는 재료는 너무도 무질서한 것일 수 있었다. 그 앞에서 철수 군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맨붕과 같은 상태에

빠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만히 바라보고 판단하여 알맞은 것을 선택하는 행동을 하는 데 아주 큰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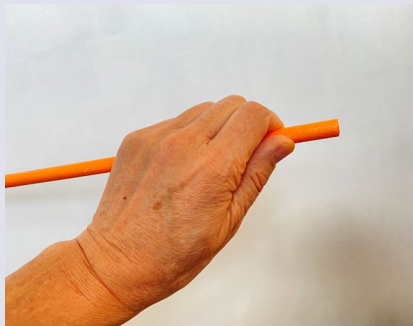
이후 활동에서 강사는 철수 군에게 재료를 한꺼번에 제공하지 않고 한 개씩 건네주는 방식으로 활동 방법을 바꾸었다. 철수 군이 플레이콘을 한 움큼 집어 천사점토에 이겨 뭉치는 행동을 했다. 그러다가 플레이콘을 바닥에 쏟고 즐기고 하는 것이 철수 군의 특성이었다. 이에 강사는 플레이콘 바구니를 치우고 플레이콘을 한 개씩만 철수 군에게 건넸다. 그러니까 철수 군은 규칙적으로 그것을 받아 점토에 뭉치는 행위를 반복하며 몰입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 다른 활동도 마찬가지로 상황이었는데, 가령 수수깡의 경우 한꺼번에 주지 않고 강사가 잡고 일부를 내어주면 철수 군은 그것을 분지르고 또 내어주면 분지르고 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속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안정적으로 바구니에 담아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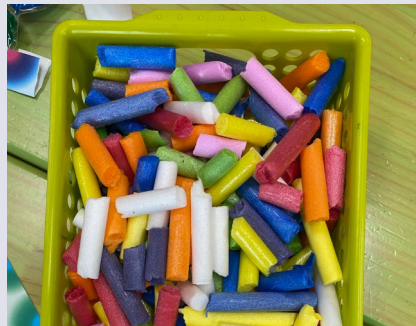
플레이콘 상자를 치우고 한 개씩만 보여주며 철수 군에게 제공하고 있다.



천사점토에 이겨 뭉쳐진 플레이콘 덩어리, 플레이콘은 천사점토의 수분을 흡수하고 쪼그라들면서 뭉쳐져 단단한 덩어리가 되었다.



강사가 이렇게 수수깡을 잡고 있으면 철수 군은 나온 부분을 잡아 분질러 바구니에 담는다.



철수 군이 수수깡을 분질러 바구니에 담은 것이다. 나중에는 이것을 쏟았다 담았다 하는 놀이로 이어나갔다.

이런 놀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었는데 스티커를 하나씩 주면 떼어서 종이에 붙이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무작위로 붙여나가다가 점차 일정한 규칙을 찾아 붙여내기도 하였다. 무언가 찢거나, 부수거나, 구멍을 내거나, 하는 공격적인 행동도 그렇게 규칙성을 가지게 되면서 매우 안정적으로 되었으며 돌발행동은 잦아드는 양상을 보였다. 활동의 후반기에서는 거의 돌발행동이 없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해냈으며 30~40분을 지속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점차 재료가 보다 많이 한꺼번에 주어져도 그것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렇지만 철수 군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강사와 1대 1로 함께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며, 강사는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재료를 제공해주며 철수 군과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었다. 한 가지 재료에서 흥미를 잃는 듯 할 때 또 다른 재료를 제공하면 다시 그것과 활동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스티커를 무작위로 종이 전체에 채워 붙여나갔는데 후반부에는 일정한 규칙을 찾아 붙였다. 왼쪽 위를 보면 둥근 원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일정하게 줄을 맞춰 붙여나가기 시작하였는데 점점 겹쳐 붙이다가 싫증이 났는지 흩어 붙이기 시작하였다.

이영수(가명) / 5세

영수 군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대체로 성품이 온순하고 특별한 돌발행동은 없지만, 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준비해간 재료들에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영수 군은 교실에 있는 숫자나 영문자로 되어 있는 블록들을 줄을 세워 배열하여 늘어놓거나 하면서 스스로 놀았다. 영수 군이 가장 즐기는 놀이 방식이었다. 한편으로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만져보는 활동을 했다. 힘을 쥐 움켜쥐거나 하는 일 없이 조심조심 손끝으로 만지거나 살짝 잡거나 입에 넣어보거나 하는 행동이 대부분이었다. 영수 군은 말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다.

활동 초기에 천사점토를 재료로 준비했다. 안전한 재료였고 촉감이 부드러워 관심을 가질 만 하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그것은 비장애 아동들도 함께 사용하는 재료였다. 그러나 영수 군은 그것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강사는 고심하다가 영수 군이 블록을 가지고 노는 동안 점토를 조그만 덩어리로 만들어 블록들 사이에 던져놓아 보았다. 그런데 영수 군은 점토만 골라내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분명 자신의 놀이에 방해가 되는 요소라 할 수 있었다.



숫자 블록 놀이를 하고 있는 영수 군 뒤쪽으로 영수 군이 골라낸 점토 덩어리들이 있다.

좀 더 예쁘고 눈에 띄게 점토 덩어리를 만들어 보았지만 여전히 관심을 두지 않고 한쪽으로 치워두고 있다.

다음 활동에서 영수 군이 교실에 있던 당근 모양의 놀잇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이에 강사는 점토를 당근 모양을 만들어 영수 군에게 건네보았다. 그랬더니 영수 군이 그것을 받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놀던 당근 모양 놀잇감과 나란히 놓았다. 이에 강사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모양을 변형하여 만든 점토 덩어리를 건네주었고 영수 군은 그것을 받아 함께 나란히 배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영수 군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놀던 물건들의 세계가 있고 그 밖의 낯선 것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번 점토를 받아들이자 다른 모양의 점토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그것들을 숫자 블록들처럼 테이블 위에 일렬로 배열하면서 놀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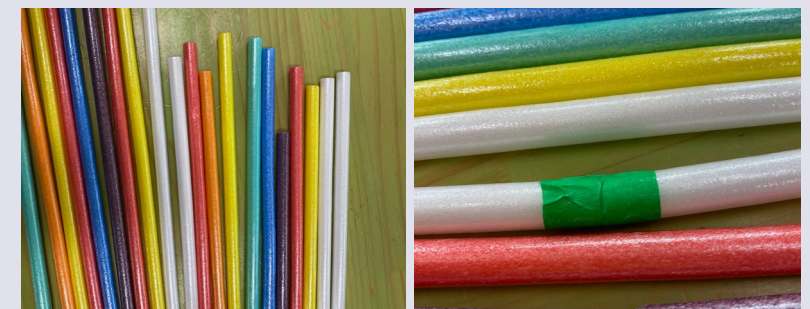


영수 군은 당근모양의 놀잇감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점토 덩어리들을 일렬로 배열하여 놓기 시작하였다.

영수 군은 강사가 만들어준 다양한 형태의 점토들을 배열하는 놀이를 하였다.

그런데 영수 군은 점토를 가지고 놀기는 하지만 그것을 손으로 눌러 변형을 시키거나 스스로 뭉쳐보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있는 그대로를 놓고 만져보거나 배열하거나 하는 행동을 넘어서지 않았다. 그리고 점토에 대한 관심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잠시 집중하였을 뿐 또다시 교실의 다른 익숙한 물건들로 관심을 돌렸다.

그다음 시간은 영수 군에게 활동 보조교사가 수수깡을 줬는데 이에 관심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영수 군은 다른 재료를 그렇게 했듯이 조심스럽게 만져보거나 배열하는 활동을 했다. 순서를 바꿔가며 이리 배열해보고 저리 배열해보고 하는 것이다. 이에 강사가 그중 수수깡 한 개를 집어 들자 영수 군은 그것을 빼앗으려 했다. 원래 있던 자리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는 듯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수수깡을 빼앗으려 했다. 그러다가 수수깡이 부러져버렸는데, 영수 군은 완전히 울상이 되어버렸다. 그걸 집어 들고 다시 붙여내라는 듯이 내밀고 애원을 했다. 테이프로 감아 붙여주니 안심하고 다시 배열하기 활동을 했다. 강사는 이에 또다시 수수깡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영수 군은 이번에는 수수깡을 잡아당기지 않고 강사의 손가락을 퍼 수수깡을 빼앗으려고 했다. 수수깡이 부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동작이었다. 강사는 일부러 더 붙잡았고 끝내 수수깡이 부러졌는데 영수 군은 그것을 도로 맞춰 하나로 만들려 애를 썼다.



수수깡을 배열하며 놀고 있는 영수 군

수수깡이 부러져 테이프를 붙이거나 다시 맞춰 하나로 만든 모습

이런 모습에서 영수 군은 사물이 가진 본래의 모양이 변형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천사점토를 주어도 어떤 변형도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만졌다. 그동안 활동에서 무언가를 만든다든가 그린다든가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오로지 손끝으로 살살 만지고 혹은 그것들을 배열하는 행동에 머물기만 했다. 한번은 다른 비장애 아동이 만든 닭다리 같은 모양의 점토 덩어리를 가지고 놀기 시작하였는데 놀다가 한 부분이 부러지게 되자 그것을 들고 와 붙여달라고 애원을 하였다. 테이프로 감아 붙여주자 좋아라고 들고 갔다. 영수 군은 이처럼 그것들이 변형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영수 군은 물건들을 모두 어떤 완전체인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았다. 그것들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행동도 그런 완결성을 부여하는 행위가 아닐까 추측해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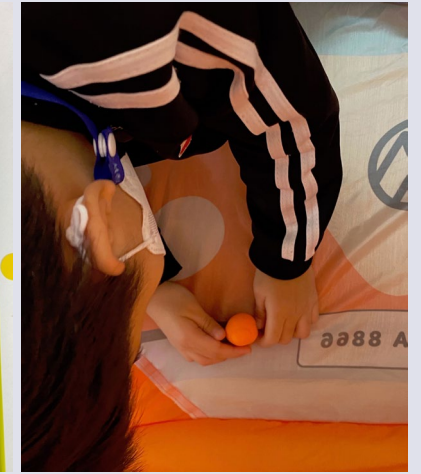


부러져 테이프로 감아 봉합한 점토덩이

그래서 다음 활동 재료로 강사는 영수 군을 위해 놀잇감을 만들어갔다. 영수 군이 만들기를 하지 않으니 영수 군이 선호할 놀잇감을 만들어본 것이다. 영수 군은 둥글둥글한 모양을 특히 좋아하고 나열하기를 좋아하기에 그에 알맞게 천사점토와 은박지 두 종류의 둥근 모양을 여러 가지 사이즈로 만들어 제공하였다. 그것을 만지거나 배열하면서 놀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영수 군은 그것들을 살살 만져보더니 그중에 스스로 적당한 크기라고 여겨지는 점토 덩이 하나를 잡고 그것만 들고 다니며 촉감 놀이를 하였다. 영수 군은 질서를 배열할 수 있는 어떤 형태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때 상황과 느낌에 따라 적당한 형태와 촉감이 영수 군의 관심을 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수 군을 위해 강사가 만든 놀잇감



영수 군은 강사가 만든 놀잇감 중 하나를 골라 촉감놀이를 하고 있다.

최은비(가명) / 5세

은비 양은 미술활동 보다는 사람에 관심을 가진다. 재료를 만지며 활동을 하다가도 강사 선생님을 보며 싱긋 웃고 인사를 했다. 그러다가 무엇을 만들거나 그리는 활동에 집중력을 잃고는 했다. 집중력을 잃으면 쥐고 있던 재료를 바닥에 던지고는 했다. 집중력이 짧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행위에 꽂히면 계속 그것을 반복했다. 보통 은비 양이 빠지는 행위는 무언가를 찢고 부수고 해체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유성펜으로 스티로폼 판에 그리기를 해보도록 유도했지만 그것에는 오래 집중을 못했다. 테이프를 주자 그것을 뜯어 계속 풀어냈는데 지금까지 했던 행위 중에 제일 오랫동안 집중했다.



은비 양이 테이프를 뜯고 있다.



은비 양이 그린 그림과 뜯어낸 테이프

테이프 말고도 은비 양이 비교적 오랫동안 집중하는 재료는 수수깥이었다. 수수깥을 주면 그것을 계속 부수었다. 긴 것을 점점 짧게 부수기도 하고 수수깥 여러 개를 같이 들고 부수기도 했는데 잘 안되면 수수깥을 갖다 주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수수깡을 부러뜨리고 있다.

수수깡을 여러 개 부러뜨리고 있다.

은비 양은 자신이 힘을 주어 재료가 변형되는 것, 그것의 자극이 클수록 더 집중하는 것 같았다. 테이프 같은 경우 은비 양이 팔을 펴서 쪽 뜯어 내야하고 또 소리가 나기도 해서 좋아하는 것 같고 수수깡 또한 부수면 특유의 촉감과 함께 소리가 나서 은비 양의 흥미를 끄는 것 같았다.

은비 양에게 테이프나 수수깡 말고 다른 재료를 주기도 했다. 은비 양이 선호하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강사는 해체하거나 부수기 좋은 재료를 주었다. 그러면 은비 양은 비슷한 방식으로 재료를 다뤘는데 예를 들어 동글게 말려 있는 철사를 주면 계속 풀었다. 그래서 강사는 옆에 앉아 계속 철사를 다시 말아 건네주었다. 또한 색종이를 주면 찢었다. 다 찢으면 새 색종이를 주었고 그러면 은비 양은 크고 작게 색종이를 찢어버렸다.



은비 양이 철사를 풀고 있다.

은비 양이 색종이를 찢고 있다.

은비 양이 하는 행동에 어떤 규칙성이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고 재료에 자신이 반응하는 자극이 클수록 더 흥미를 가졌다. 재료를 가지고 행동할 때 발생하는 소리나 촉감에 반응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행위 자체에 깊이 빠져들어 즐긴다고 볼 수는 없었다. 은비 양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 즉 강사 선생님에 대한 애정 때문에 하기 싫어도 다시 재료를 만지고 작업하는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은비 양은 미술작업이 하기 싫어 재료를 던진다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등 여러 방식으로 의사 표현을 했지만 강사나 활동 보조교사가 그래도 해야 한다고 다시 재료를 쥐여주면 눈을 쳐다보다가 작업에 다시 집중하고는 했다.

박은혜(가명) / 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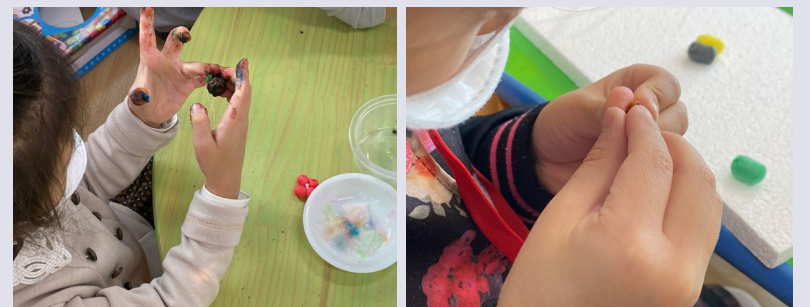
은혜 양은 촉감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계속 그것을 음미하며 탐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처음 은혜 양에게 점토를 주었을 때 조금 떼어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그것이 주는 말랑거리면서도 쫄깃한 촉감을 계속해서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무언가를 만드는 것보다 촉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것 같았다. 어느 날은 만지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만들기도 했다. 또는 계속 그렇게 만지다가 아주 작은 구를 몇 개 만들기도 했다. 그 촉감에 오래도록 집중했으며 어떨 때는 그 집중력이 높아서 다른 소리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았다. 보통 점토를 비비탄 정도의 크기로 작게 말아 만지작거리면서 놀았다.



은혜 양이 점토를 만지고 있다.

은혜 양이 점토를 손에 끼워보면서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있다.

또한 플레이콘을 가지고도 오래 놀았다. 플레이콘이 물에 묻으면 끈적이고 그러면서 뭉칠 수도 있는데 그 촉감이 점토와 어느 정도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이 있어서 흥미로워하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플레이콘을 크게 뭉쳐보기도 했는데 플레이콘이 끈적거리게 손에 묻어도 개의치 않고 뭉치면서 그것을 관찰하고 느끼는 것 같았다. 끈적거리는 상태 속에서 계속 손가락을 움직이며 한참 동안 느끼고 있었다. 나중에는 은혜 양이 좋아하는 크기인, 즉 비비탄 정도의 크기로 뭉쳐서 가지고 놀았다.



은혜 양이 플레이콘을 뭉쳐보고 있다.

플레이콘을 작게 뭉치고 있다.



다른 색의 점토를 덧입히고 있다.



은혜 양이 점토로 다리 같은 형태를 만들었다.

하지만 은혜 양은 플레이콘보다는 점토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았다. 점토가 더 말랑거리고 더 예민한 작업이 가능해서 그런 것 같았다. 은혜 양은 점토를 가지고 구가 아닌 다른 형태를 만들기도 했다. 하루는 구를 만들어 가지고 놀다가 다른 색깔의 점토를 그 위에 껍질처럼 얇게 덧입히기도 했다. 또는 점토를 납작하게 만들더니 다리 같은 형태의 무언가를 만들기도 했다.



은혜 양이 점토를 작게 말아 꽃을 만들었다.



은혜 양이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다.

처음에는 구나 단순한 형태를 만들었지만 점점 다양한 형태를 만들기 시작했다. 은혜 양은 색깔에 예민하게 반응했고 좋아하는 색과 싫어하는 색이 분명하게 있었다. 점토를 조물거리며 꽃을 만들기도 했고 아이스크림 시리즈를 만들기도 했다. 그것을 만들 때도 형태나 색을 예민하게 신경 썼다. 아이스크림 시리즈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있어야 한다면 솜 위에 올려두었는데 솜의 하얗고 몽글거리는 이미지를 냉장고 속의 차가운 느낌으로 치환해서 바라본 것이 흥미로웠다. 은혜 양이 만든 것들은 모두 손가락으로 조물거리며 만드는, 작은 크기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솜 위에 아이스크림 시리즈를 올려놓았다.



스티로폼의 촉감을 느껴보고 있다.



은혜 양의 수수깡 작업

은혜 양은 자신의 기호가 확실하고 재료의 촉감이나 색을 예민하게 감각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다. 집중력 또한 꽤 높은 편이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세계에만 빠져 있기보다는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 다른 친구가 스티로폼을 마구 부숴 놓은 것을 보고 가서 만지면서 스티로폼 알갱이 하나하나를 느껴본다던가, 다른 친구가 수수깡에 이쑤시개를 꽂아 무기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자신도 수수깡 위에 작은 조형을 만들어 비슷한 것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한 번 해보고서 다시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돌아오고는 했다.

3. 서천여자중학교 특수학급 사례

서천여자중학교 특수학급 활동은 본 연구의 일환으로 개설되어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주당 1시간 총 15주 동안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원이 주강사, 책임연구원이 보조강사로 진행하며 활동을 관찰해낸 기록이다. 학급은 15세~16세 발달장애 학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 보조강사는 가능한 활동에 개입하지 않고 관찰자의 역할을 하고자 했다. 자칫 강사의 과잉이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활동은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정해진 프로그램이나 일정이 없이 매체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하였고, 학생들의 반응과 욕구의 흐름에 따라 수업이 변화해갔다. 수업의 변화란 그에 알맞게 매체를 변경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강사는 활동 중에 이러저러한 개입을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활동을 관찰하고 수업 후 보조강사와 의견을 나누며 그다음 수업을 준비하였다. 이때 보조강사는 수업 중 가급적 제 3자로서 관찰자의 역할을 맡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사례는 앞의 사례와 다르게 학생 3명과 강사가 상호작용을 하는 수업의 과정을 기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수업은 총 15시간이지만 학생을 관찰하기 위한 만남 시간, 그리고 이후 제시되는 매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4번의 단락, 그렇게 총 5단락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이를 통해서 강사가 활동 당사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체 수업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은수(가명/16세), 유정(가명/15세), 서윤(가명/14세)이다.

학생과의 만남 및 매체의 선정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남에서 강사는 상대방의 얼굴을 그리거나 자신의 손의 외곽을 따라 그리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얼굴을 그리는 것은 서운 양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 모두 힘들어했고 손을 따라 그리는 것은 서운 양과 은수 양에게는 가능했지만 유정 양에게는 어려웠다.

이 테스트는 첫 번째 매체를 정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가 되었다. 강사는 어떤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재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손을 정교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조형 활동이 가능한 매체를 선택하고자 하였다. 고민 끝에 선택한 재료는 뭉치거나 구부리고 찢고 붙이는 것만으로도 조형 작업이 가능한 점토와 철사, 색 레이프였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상상해 보면서 다양한 행위의 조합이 가능하도록 스티로폼 판과 색 유성펜을 추가하였고 그래서 총 다섯 가지의 재료로 수업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 매체 | 점토, 공예용 철사, 스티로폼 판, 색 레이프, 색 유성펜



처음 준비해간 다섯 가지의 재료들

1차시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오로지 재료 다섯 가지만 들고 수업을 시작했다. 만들기의 주제도 따로 없었다. 예측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강사는 ‘이 재료를 아이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질문만 품은 채로 수업을 시작하였다.

주제가 없다고 하니 학생들은 처음에 좀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가장 적극적인 성격의 서운 양이 먼저 점토를 들고 만들기 시작했다. 점토의 색을 섞었고 둥글게 말아 여러 개의 구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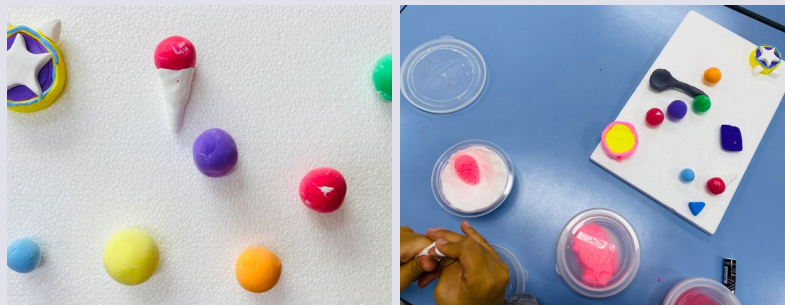
이어서 은수 양도 스티로폼 판을 가져와서 매직펜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꽃과 구름을 그리고 점토를 조금씩 떼어다 스티로폼 판에 붙여서 꾸몄다. 유정 양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노란색 점토를 가져와 스티로폼 판에 붙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망설이면서 스티로폼에 붙인 것을 떼어 버리고 다시 붙이고를 반복했다.

2~3차시

같은 재료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저번 시간에 선택한 재료와 행위를 반복하여 진행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될수록 각 학생마다 재료를 다루는 양상에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먼저 서운 양의 경우 계속 점토로 구 형태와 그릇 형태를 만들었는데 빠르게 지루함을 느꼈다. 이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케이크, 과일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마찬가지로 둥글고 대칭의 기본 형태였다. 비정형 사물을 만드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았고 그 벽을 스스로 깨고 나아가는 것이 힘들어 보였다.

강사가 어떤 방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재료를 경험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조형 작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다.



서운 양이 만든 구의 형태들

서운 양은 비정형의 형태를 만들고 싶어 했지만 그것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다

유정 양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노란색 점토를 스티로폼 판에 붙였는데 한참 동안 점토를 주무르다가 겨우 붙이고 떼어내고를 반복했다. 하지만 점토를 붙였다가 ‘이건 실패야’라며 떼어내는 모습에서 결과물을 낸다는 것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정 양이 스스로 더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이 보였다. 스티로폼에 점토를 붙이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일종의 목표가 정해진 것 같았다. 하지만 유정 양은 그 과제를 망칠까 두려워했다. 하루는 특정한 행동으로 그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는데 점토를 주무르고 손에 점토가 묻으면 과장된 제스처로 그것을 떼어내는 것을 반복했다. 이것은 스티로폼에 점토를 붙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알리바이로 보였다. 즉 ‘점토가 손에 자꾸 묻으니 나는 이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겠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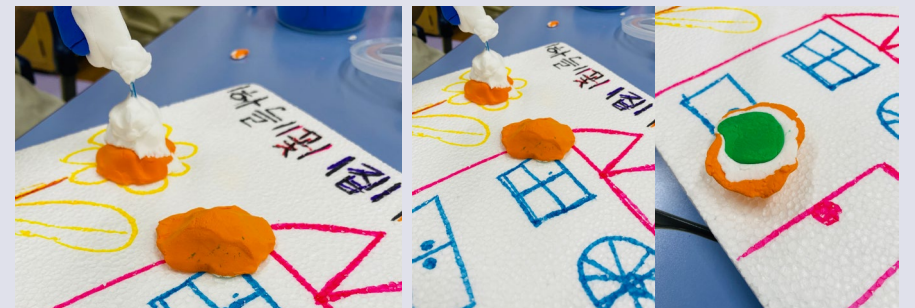


유정 양이 점토를 조금씩 떼어 스티로폼에 붙였다



손에 묻은 점토를 계속 떼어내며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은수 양은 저번 시간처럼 스티로폼 판에 유성펜으로 그림을 그렸고 그 위에 점토와 철사로 꾸몄는데 대담하고 자유롭게 재료를 사용했다. 특히 점토의 보이지 않는 안쪽을 여러 색으로 겹쳐 만드는 방식은 은수가 즉흥적으로 만든 기법으로 보였다.



은수 양의 작품

은수 양이 즉흥적으로 만든 기법, 안에 보이지 않게 색색의 점토가 겹쳐 있다

서운 양과 유정 양이 각자의 두려움에 부딪혀 막막해하고 있을 때 은수 양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창작에 몰입하고 즐겼다. 점점 구체적인 무언가를 만든다는 의지에서 벗어나 좀 더 열린 방법으로 재료를 사용했다. 나중에는 테이프를 붙여 구성하면서 추상화와 비슷한 작품을 만들었다.

은수 양은 나름의 규칙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테이프를 붙일 때도 순서가 있었다. 철사가 너무 높이 나온 것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자르고 다시 꽃았다. 강사는 은수 양이 기술적으로 막힌 것 같이 보일 때만 조언을 했다. 그러면 은수 양은 대부분 조언을 받아들이고 진행했다. 혹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이면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문이 열리고 길을 가고, 가다가 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처럼 은수 양은 자연스럽게 탐험하듯 작업을 했다. 철사를 꽃고 작은 오브제를 배열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완성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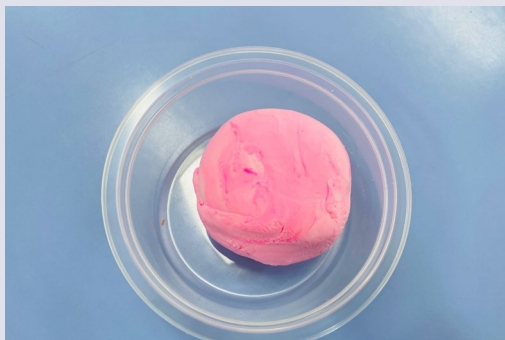


은수 양의 작품

4차시

서운 양은 은수 양에 비해 손의 움직임이 유연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지만 남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자신이 잘하는 것보다 자신이 못하는 것에 대해 더 집중하는 편이었다. 강사는 그 이유가 서운 양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비교적 장애의 정도가 덜하다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비교당하는 환경에 더 노출되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해보게 되었다. 하나의 기준으로 계속 비교당하는 학교의 환경에서 계속 실패의 경험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고 말이다.

그녀는 점토를 계속 주무르다가 결국 포기한 듯 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더 이상 뭘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했다.



서운 양은 망설이더니 큰 구를 하나 만들었다

강사는 새로운 재료인 ‘철사’를 가져와 구부리면서 새로운 시도를 유도해보았다. ‘무언가를 꼭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이상하고 신기한 것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구를 계속 주무르는 모습을 보며 ‘구가 둥그니까 얼굴을 만들어 볼까?’ 라고도 서운 양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서운 양은 망설이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다.

그 제안은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하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서운 양에게 너무 어려운 제안일 수 있었다. 이상하고 신기한 모양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 모호한 것이었고 철사라는 재료도 낯설기에 막막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서운 양에게는 뭔가 확실하고 단순한 해결책이 필요해 보였다.

그래서 강사는 서운 양에게 테이프를 주며 지금까지 만든 것을 포장해달라고 부탁했다. 서운 양은 그 제안을 듣고서 안도한 것 같았다. ‘그건 별거 아니지.’ 이런 마음으로 테이프를 감으면서 작업을 했다. 경직된 것이 좀 풀어진 것 같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만든다는 공포에서 벗어나 그저 테이프로 감싸는 행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서운 양이 두려움을 넘어서 작업의 다른 국면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서운 양이 구를 넣는 그릇을 테이프로 감아 포장하고 있다



그 후에도 포장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은수 양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조형 방식을 찾아가고 있었고 유정 양은 계속 막다른 길에서 충돌하며 다른 해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학생들 모두 새로운 재료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재료 선택은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유정 양은 손의 움직임이 제한적이고 남의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유정 양이 소외되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새로운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재료가 필요했다.

강사는 지난 수업을 진행하면서 ‘무언가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덜어주는 재료를 선택해야겠다고 판단했고 신문지를 새로운 재료로 택했다. 점토나 물감처럼 무언가 조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보다 더 행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찢거나 뭉치거나 등 다양한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 안전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였다. 그렇지만 신문지만으로는 목표로 삼을 틀이 없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판단에 검은색 도화지를 같이 준비했다.



두 번째 매체 | 신문지, 검은색 도화지, 풀, 가위, 셀로판테이프

1~2차시

책상 가운데에 신문지 한 더미를 놓아두었다. 처음 신문지 더미를 마주한 학생들은 당황했다. 학생들에게 무조건 신문지로 무엇을 만들라고 하면 너무 막막해질 것 같아서 강사는 이것을 게임처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게임의 룰은 돌아가면서 신문지를 사용해 새로운 방법으로 모양을 만드는 것이었다. 강사가 개입하여 수업을 일정 부분 유도하는 게 좋겠다고 여겨져서 강사도 같이 게임에 참여했다.

강사가 먼저 신문지를 뭉치거나 찢거나 하면서 여러 방식으로 신문지를 다루자 서운 양은 이 게임의 룰이 무엇인지 바로 파악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기를 하였다. 은수 양은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기보다는 신문에 인쇄된 사진에 집중했고 그것을 하나씩 찢어 내거나 오리려고 하였다. 매 순서마다 그렇게 하고서 다른 방법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서운 양은 답답해하며 게임의 룰은 그게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서운 양의 행동은 너는 틀렸다고 지적하며 우열을 지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강사는 이제 게임의 룰과 상관없이 각자가 제안하는 것이 새로운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게임은 끝났고 각자가 끌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시작하였다.

은수 양은 처음에 가위 없이 손으로 찢은 레두리가 마음에 안 드는지 가위를 달라고 하였고 네모반듯하게 사진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사진을 고르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모든 사진을 자르는 것은 아니었고 사진 말고 글씨도 있었다. 은수 양이 잘라낸 사진을 배치하고 구성할 배경이 필요해 보여서 강사는 검은 종이를 건네주었다. 은수 양은 검은 종이에 사진을 붙이기 시작했고 그것도 최대한 깔끔하게 붙이려고 했다. 나중에 사진을 원하는 배열로 붙이고 빈 공간에 특수학급 담당 선생님께서 짤막하게 편지를 써서 작품을 완성하였다.



은수 양은 신문에서 사진을 오려냈다

검은 종이에 사진을 배치하고 붙였다

서운 양은 무언가를 감싸거나 말아 뭉쳐서 형태를 만들거나 띠를 돌려 포장하는 등 틀을 벗어나 나온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마 저번 시간에 레이프로 포장하며 놀던 것이 영향을 준 것 같았다. 신문지를 사용하여 여러 방식으로 포장하면서 조형 작업을 만들었고 충분히 다 한 다음에는 검은 도화지를 여러 크기의 사각형으로 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편지 봉투 같은 것을 만들어 만든 사각형들을 넣고 밀봉했다. 검은 종이를 자르는 것은 은수 양의 것을 보고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서운 양은 지난번 재료를 쓸 때보다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 보였다. 무엇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손이 가는 대로 하기 시작했고 중간에 막힐 때도 막막해하지 않았다.



포장하는 방식으로 만든 서운 양의 작품



잘라낸 검은 사각형을 봉투에 넣고 밀봉하였다

지난 시간에 유정 양이 결석했기 때문에 강사가 일대일로 유정 양과 수업을 진행하였다. 유정 양은 새로운 방식으로 신문지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지 계속 머뭇거리며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강사는 게임의 룰을 바꾸어 강사가 어떤 방식으로 신문지를 사용하면 유정 양이 그대로 따라 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강사가 신문지를 찢으면 유정 양도 찢었다. 접거나 말거나 구멍을 뚫는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했고 유정 양도 따라 했다. 꼬는 동작 같은 경우는 손 근육을 더 많이 써야 해서 유정 양이 따라는 했지만 힘들어하는 것이 보였다.

유정 양은 ‘안돼’, ‘잘 모르겠어’, ‘망했어’라는 말을 하며 머뭇거리다가 종이를 잘게 찢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꼈는지 그 방식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강사는 유정 양에게 더 큰 동작을 유도해보기도 하고 일어나 보라고 하기도 했는데 유정 양은 더 이상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거부했다. 유정 양은 신문지를 잘게 찢는 방식을 선택했고 그래서 강사는 그 선택을 존중하여 당분간 지켜보기로 했다.



유정 양은 신문지를 잘게 찢고 마는 방식을 선택했다

다른 재료로 수업을 진행해보니 각 학생이 선호하는 방식의 공통점이 보였다. 서운 양은 감싸고 포장하고, 은수 양은 여러 조각들로 평면을 구성하고, 유정 양의 경우 잘게 나누고 뭉쳤다.

학생들은 어느새 각자 선호하는 방식을 찾아 집중하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성격, 능력,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강사는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상황마다 다른 방식으로 개입을 해야 했다.

3차시

같은 재료로 수업을 3시간째 진행하자 서운 양이 싫증이 났는지 다른 재료로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서운 양은 이전에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 금세 싫증을 내는 편이었다. 이 지루함을 좀 견뎌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강사는 앞에 놓인 신문지 뭉치를 다 써야 다른 재료로 넘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서운 양은 그것을 일종의 ‘과제’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저돌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신문지를 빠르게 소진하기 위해 여러 번 겹쳐 말아 레이프로 붙이기 시작했다. 점점 대담하게 많은 양의 신문지를 뭉쳐서 덩이를 만들었다.

원래 하던 대로 포장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방식이 과감해지고 규모가 커지자 또 색다르게 재미있는 모양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운 양은 그것을 바라보며 재미를 느끼기보다는 이 신문지를 다 써야 한다는 과제에 강하게 사로잡힌 것 같았다. 포장하고 쌓는 행위 자체에는 더 빠져들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웠다.



서윤 양이 다양한 방식으로 신문을
뭉치고 있다



서윤 양이 뭉친 신문을 모아 쌓고
있다

은수 양은 서윤 양과 달리 ‘신문지를 다 써야 한다.’는 목적이 잘 와 닿지 않는 것 같았다. 사진을 먼저 하나 잘랐고 잘려 나간 곳을 테이프로 다시 붙이기도 하면서 자신이 하는 행위에 집중했다. 하지만 서윤 양이 목적을 상기시키자 잠시 눈치를 보고 의식을 하는 것 같았다. 고민하더니 효율적으로 신문지를 써버리는 방식으로 서윤 양처럼 ‘마는 방식’을 택했다. 다른 학생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사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은수 양은 서윤 양과 다른 방식으로 테이프를 사용했는데 테이프를 가로로도 붙이고 세로로도 붙이면서 테이프를 붙이는 행위에 빠져들었다.



은수 양이 사진을 잘라낸 부분을 다시
테이프로 붙이고 있다



은수 양이 말아놓은 신문에 다양
한 방식으로 테이프를 붙이고 있다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유정 양이었다. 오늘 수업의 큰 목표 ‘신문지 다 쓰기’가 생기자 서윤 양은 목적을 향해 달렸고 은수 양은 목적을 신경 쓰긴 했지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즐겼다. 유정 양은 그 목적을 바라보며 작업을 하다가 자신의 두려움을 잊은 듯 보였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등의 의심을 내려놓고 최대한 열심히 신문지를 찢었다. 큰 목표 때문에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것이 유정 양을 편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유정 양은 찢은 신문을 뭉쳐 앞쪽
에 갖다놓는다



신문지를 찢고 뭉치는 유정 양

‘신문지를 다 쓴다.’는 목표는 유정 양에게는 두려움을 있게 하는 역할을 했지만 서윤 양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다. 그 목표 때문에 자기 활동의 즐거움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래서 재료를 조금 바꿔보기로 했다.

서윤 양이 감싸고 포장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어울리는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다양한 질감의 종이, 그것을 묶을 수 있는 끈, 포장 안에 넣을 수 있는 솜, 붙여서 꾸밀 수 있는 스티커를 준비했다.

세 번째 매체 | 신문지, 검은색 도화지, 풀, 가위, 셀로판테이프

+ 솜, 습자지, 포장지, 면 끈, 스티커

1~2차시

서운 양은 지난번처럼 신문지를 한 뭉텅이 가져와 종이테이프로 감싸서 작품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새로운 종이 재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습자지의 가장자리를 접어 봉투를 만들고 솜을 넣은 종이봉투 시리즈를 만들었다. 다시 서운이가 즐겁게 작업할 수 있는 조건으로 돌아왔다.

계속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강사는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 사각형의 주머니에서 한쪽 면을 그냥 묶어버리는 자루식의 작품을 만들었다.



솜을 넣어 완성한 작품들



서운 양이 사각형 말고 자루형의 조형도 시도했다

은수 양은 새로운 재료 중 포장지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위에 스티커로 구성하면서 평면적인 패턴에 집중하는 은수 양만의 조형 방식을 드러냈다. 은수 양은 글루건을 사용하여 주머니를 만들고 그 안에 솜을 집어넣었다. 주머니를 만들어 솜을 넣는 것은 서운이의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글루건을 사용하는 모습에서는 서운 양보다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이 드러나는 것 같았다.



은수 양이 주머니를 만들어 솜을 그 안에 넣었다



평면적인 패턴이 강조된 은수 양의 작품

그다음에는 습자지로 작업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주머니를 만들어 솜으로 만든 오브제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그것을 납작하게 만들고 빠져나오는 부분은 잘라내면서 계속 작업을 평면에 머무르게 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입체를 다루기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주머니를 접고 스티커를 위에 겹쳐 붙이면서 자연스럽게 작품은 입체가 되었다.

습자지와 스티커의 색이 다양해지자 은수 양의 작품의 느낌이 확연히 달라졌다. 은수 양은 원색과 화려한 분위기를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았다. 이번에도 만든 것을 검은 종이로 봉투를 만들어 안에 집어넣었다. 지난 번에 만든 것과 비슷한 방식이었다. 서운 양의 것처럼 밀봉하지는 않고 살짝 열면 볼 수 있었다. 보호하고 감싸는 듯한 느낌으로 보였다.



원색이 강조된 은수 양의 작품



만든 작품을 주머니에 넣었다

유정 양은 지난 시간에 이어 신문지를 계속 찢었다. 유정 양은 그것을 지켜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겨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중간중간 그것을 맡아 뭉치지만 꼭 뭉쳐야겠다는 의지는 약해 보였다. 어떨 때는 잘 뭉쳐지지 않는 상태를 즐기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크게 찢거나 작게 찢으며 편안하게 재료를 대하는 모습은 이전 점토를 대하던 때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 하지만 유정 양이 겁이 많은 편이고 그래서 쉽게 안주해버리는 성향이 있기에 강사는 이제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다. 유정 양이 계속 신문지를 뭉치는데 잘 뭉쳐지지 않으니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점토를 또 가져가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점토는 유정 양이 한번 써 본 재료이니 두려움이 덜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점토를 가져가 신문지와 같이 써볼 것을 권하기도 하고 옆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유정 양은 점토를 만져보지도 않은 채 단호하게 거절했다. 신문지라는 재료가 좋아서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신문지를 찢는다.'는 자신의 활동 위치를 확보했다는 안정감을 잃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런 안정감이 깨지는 게 두려워 거절하는 것으로 보였다.



유정 양이 신문을 잘게 찢은 다음 뭉치고 있다

3차시

서운 양은 저번 시간까지 솜을 집어넣고 사각형 모양으로 싸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오늘은 솜을 좀 만지다가 솜을 동그랗게 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잘 안된다고 생각했는지 그만두었다. 이 부분은 서운 양이 ‘사각형으로 포장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뜻대로 안되자 벽을 느끼고 그만둔 것으로 보였다. 게다가 ‘솜’이라는 재료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용기를 내어 시도했는데 결국 실패를 겪고 상처를 받은 것 같았다. 이제 서운 양에게 ‘솜=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재료’가 된 것 같았다.

그 이후 서운 양은 습자지를 종이테이프로 감싸거나 주변에 있던 점토를 습자지로 싸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 점토는 원래 유정 양을 위해 준비했던 것인데 서운 양이 발견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점토는 예전에 사용했던 재료고 사용하는 데 부담이 없었다. 서운 양은 테이프 틀을 이용해 찍어내듯 점토로 동그라미를 만들었다. 솜에서 하기 힘들었던 형태였는데 점토로 하는 방식을 찾은 것이다. 손으로 만들지도 않았고 틀을 이용하여 찍어내는 방식을 사용한 것은 서운 양이 선택한 안전한 방식이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다른 재료를 쓰고 싶다고 얘기했다. 서운 양은 지금까지 무슨 재료를 쓰든지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대해왔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재료를 대하다가 쉽게 질려 버렸다. 그러면서 또 다른 재료를 찾았다. 이 상황에서 강사는 선택에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계속 새로운 재료를 구해와서 서운 양이 선호하는 방식을 반복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재료를 고수하여 서운 양이 스스로 다른 시도를 찾아 나서기를 기다릴 것인지 판단해야 할 지점이었다. 만일 후자를 선택하면 좀 지루한 씨름이 시작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쨌든 당장은 재료를 바꾸지 않고 조금 더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으나 아쉽게도 서운 양에게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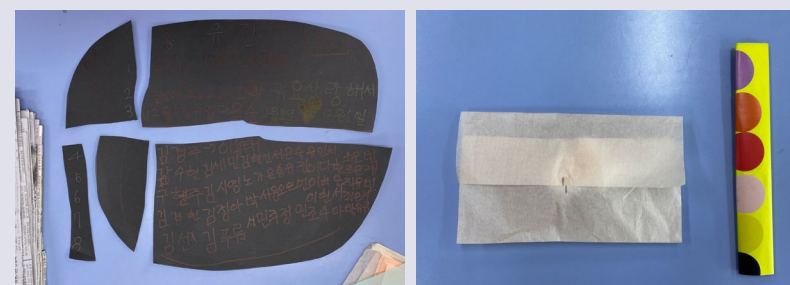


서운 양이 솜을 쓰지 않고 만든 작품들

4차시

은수 양은 검은 종이를 크고 둥글게 잘라 유정 양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은수 양은 전에도 이런 식으로 조형 작업을 하다가 원하는 글을 쓰고는 했다. 검은 종이에 검은 매직으로 글씨를 쓰고 색깔 매직으로 꾸며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이것은 ‘종이 위에 검은색으로 글씨를 쓴다.’는 익숙한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는 쓴 내용에 따라 조각내어 종이를 분리하였다.

그런 다음 전에 하던 포장 방식의 작업을 이어서 했다. 아마도 서운 양의 영향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이 작업은 점점 은수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변화했다. 안에 솜을 넣고 습자지를 편지 봉투처럼 만들어 넣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꾸미지 않고 완성이라고 했다. 그 후 새로운 방식의 만들기로 넘어갔다. 그것은 여러 색의 습자지를 김밥처럼 말고 그 위에 스티커로 마무리하는 방식이었다. 은수는 이처럼 자연스럽게 계속 새로운 방식으로 재료를 다루며 작업했다.



은수 양이 편지를 쓴 다음 내용에 따라 분리하여 종이를 잘랐다 포장하는 방식으로 만든 은수 양의 작품

유정 양은 은수 양의 편지로 기분이 좋아 보였다.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긴장된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신문을 뭉치면서도 계속 새로운 방식을 탐구해보는 듯했다. 예를 들면 ‘길게 해볼까?’ ‘크게 뭉쳐볼까?’ 등의 혼잣말을 하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개입해서 새로운 시도를 제안하면 확실하게 거절하고 원래 하던 방식대로 진행했다.



유정 양은 계속 신문을 찢으면서 새로운 방식을 고민했다

유정 양이 계속 신문을 고집하기는 하지만 강사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졌다. 다른 재료를 가져가 보면 흥미를 가지지 않을까 해서 다음 시간을 위해 플레이콘과 우드락 판을 준비했다. 유정 양이 뭉치는 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플레이콘도 괜찮은 재료 같았다. 대신 서윤 양을 위해 마련했던 솜과 포장재료들은 뺐다.

네 번째 매체 | 신문지, 검은색 도화지, 풀, 가위, 색종이 레이프, 스티커, 플레이콘, 우드락 판

1차시

은수 양이 결석해서 유정 양과 일대일로 수업했다. 새로 가져온 재료들을 펼쳐 놓았는데 유정 양은 슬쩍 보더니 관심을 가지지 않고 신문지만 자신의 자리 쪽으로 가져왔다.

강사는 이번에는 제안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저 옆에 앉아 플레이콘을 뭉치거나 레이프를 찢고 뭉쳤다. 유정 양이 다른 재료에 가지는 이질감을 좀 줄여주고 싶어서 다른 재료를 가지고 유정 양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기를 한 것이다. 유정 양은 그런 강사를 의식하기는 했지만 곧 자기 행위에 빠져 들었다. 혼자서 웃기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을 보니 신문을 크게 또는 작게 찢고 그것을 뭉치고 하는 행위가 유정 양을 즐겁게 하는 것 같았다.

물론 유정 양은 계속 집중하지는 않았다. 몰입하는 순간이 있다가도 갑자기 강사를 의식하거나 자신이 지금 만드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문을 찢고 뭉친다는 행위가 중심에 있어 탄 길로 새다기도 다시 그 행위로 돌아왔다.

그동안 은수 양은 작업을 하며 자신의 취향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갔다. 새로운 재료를 시도하며 조형 영역을 넓혀 나가기도 했다. 거기에는 어떤 규제도 없고 목표도 없었다. 미술 작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처럼 보였고 이것이 미술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정 양에게 같은 것을 기대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 같았다.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방식을 찾은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몰입하면서 어떤 쉽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았다. 현재로서는 유정 양에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졌다.



강사와 나란히 활동하고 있는 유정 양

4. 사례를 마치며

이상으로 기록을 끝내는 데 아쉬움이 있다. 15차시로는 수업이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서천여자중학교의 경우 서운 양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유정양은 결석이 잦았다. 이야기가 중간 중간에 뚝뚝 끊어졌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은 채 드라마가 끝나버린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 활동이란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이어서 늘 그렇기 때문이다.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그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들로 이어질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교사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사자도 알 수가 없다. 세심한 집중이 필요하지만 종종 우연히 벌어진다. 계획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우연의 연속이 활동을 만들어 가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이 또한 궁금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활동을 이어가는 힘이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이어져 가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말이다.

발달장애인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시각언어 프로그램 개발연구

눈 끝에서, 손 끝까지,

책임연구원

김인규 시각예술가,
서천발달장애인에술허작그룹 보물섬 대표

공동연구원

구은정 시각예술가

협력기관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서천여자중학교

장항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정·교열

김은기

디자인

즈즈스 스튜디오

